

우정관계의 진전과정에 관한 다면·인과적 접근

한덕용·이상욱

성균관 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선행연구(한덕용, 1985, 1986 a)의 다면·인과적 접근법을 적용한 후속 종단적 연구로서 새로 사귀기 시작한 가장 절친한 친구들이 3개월 동안의 우정관계의 진전기간에, 진전되지 못한 집단에 비해서, 어떤 특징적 변화를 보이는지 알아내고자 했다. 대학 신입생중 우정관계가 진전된 47명과 진전되지 못한 33명이 세 시점에서 대인매력, 대인행동, 자기노출 및 다양한 관계의 평가와 판단에서 보이는 차이를 알아냈다. 전체적으로 시간경과에 따라서 행동, 자기노출이 높아졌는데, 전체행동, 긍정적행동, 자기노출의 다양성 및 대인매력은 우정이 진전된 경우에 진전되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다. 한편, 진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이 13주 경과된 후 형평, 상대와의 관계만족, 상대방으로부터의 호감 및 도움받을 확률을 낮게 지각했으나 진전 집단에서는 유의하게 높아지거나 적어도 낮아지지는 않음으로서 이 요인들이 깊은 교류로의 진전여부에 중요한 지표임을 알았다. 각 단면들의 상대적 예언력을 보면, 초기단계에서는 단편적 정보만으로 판단이 가능한 대인매력이 다음 시점의 다른 단면들을 예언하는데 유의한 요인인 반면, 후기단계에서는 깊은 상호교류를 통해서 경험하는 관계의 만족, 도움받을 확률, 장래예견 등이 중요한 예언요인이었다. 우정관계의 진전여부에 대한 귀인을 보면, 진전 집단에서는 상호협조, 상대방의 좋은 대우나 성격, 부담의 적음 등으로 귀인시켰고 비진전집단은 진전이 안된 원인으로 자기노력 부족, 태도의 불일치, 자기 관심의 부족 등을 들었다. 이 결과는 친밀한 관계에서 내외귀인 구분이 부적절함을 시사한다.

서 론

이 연구는 한덕용(1985, 1986 a)의 선행연구와 동일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우정관계의 진전과정에 관한 종단적 연구이다. 한덕용(1986 a)은 우정의 형성과 발전을 연구함에 있어서 우정관계의 단일 단면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보다 여러 단면 상호간의 공변성과 인과성을 다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주장은 우정관계의 진전과정에서 특정한 단면만을 다루는 대부분의 이론

들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제안되었다. 우정이나 애정관계의 발전에서 단일 차원에만 관심을 집중시킨 이론들이 최근까지도 지배적 영향력을 지니는데, 예를 들면 대인매력(예 ; Newcomb, 1961), 대인 평가나 태도(예 ; Thibaut & Kelley, 1959; Snyder & Swann, 1978), 자기노출(예 ; Altman & Taylor, 1973), 혹은 대인행동(예 ; Levinger, 1974; Huesmann & Levinger, 1976), 그리고 형평(Walster, Walster, & Traupman, 1978) 등에 관한 연구들이 모두 이에 속한다. 최근 임상심리분야에서 대인관계에서의 귀인(예 ; Fincham & O'Leary, 1983; Fincham, 1985a)을 다룬 연구까지 포함시키고 보면 단일 단면을 다루는 연구가 대부분이라는 필자의 주장은 쉽게 납득될 수 있다.

필자가 다면·인과적 접근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전체로서의 우정관계나 애정관계의 이해가 연구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목적과는 긴밀한 관련성이 없이 단일 단면의 연구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전체로서의 통합이 시도되지 못하는데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나의 예를 들면, 대인매력이라는 한 단면이 우정이나 애정관계 자체나 형성 및 발전과정에서 차지하는 기능을 다른 단면들과 관련지워 한정하지 못한채로 우정관계에서 대인매력이 중요하리라는 가정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물론 Thibaut와 Kelley(1959)에 의해서 대인관계에서 매력과 관계지속이 각각 비교수준(CL)과 대안적 비교수준(CL_{ALT})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안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매력연구는 함축적으로 관계지속과 같은 맥락에서 연구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연구가 어느 정도 진전된 최근에 와서야, 필자(1986 b, p. 64)가 지적한대로, 친밀한 대인관계의 형성이나 발전과정에서 대인매력이 차지하는 의의를 근본적으로 문제삼게 되었다.

한편, 단일 단면을 중심으로 수행된 종단적 연구들과는 달리 Gaipa(1977)는 우정관계의 본질이 다면적이라고 이해하고 여러 단면에서의 변화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자기노출, 성실성, 도움행동, 수용, 긍정적 대우, 성격 강도로서 사회적 가치에의 동조 수준, 태도나 흥미의 유사성, 감정입적 상대 이해 및 의례적 교환행동이 양자관계에서 일방의 판단으로 볼 때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Gaipa(1977)의 다단면적 접근은 대인관계 자체의 성질을 다면적으로 파악한 접근이기는 하지만 양자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건들 가운데 행위자겸 판단자의 내적 경험에 한정되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다단면 상호간의 관계나 시점간 변화에서 다단면의 상호영향 관계의 파악이 결여되었다.

양자관계의 연구에서 최근까지 여러 단면의 상호관련성과 시계열적 변화과정에 관하여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Kelley, Berscheid,

Christensen, Harvey, Huston, Levinger, McClintock, Peplau 와 Peterson(1983)의 밀접한 대인관계에 관한 접근법과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에서도 지적되었다. 이들(1983, p. 57)은 대인관계의 결정요인으로서 개인, 대상인물, 개인과 대상인물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적 및 물리적 환경이 선행요인으로 작용하여 개인과 대상인물과의 상호작용을 결정짓고, 다시 이 상호작용 과정을 거친 결과가 대인관계의 새로운 선행조건을 이룬다는 시계열적 인과적 순환작용과정을 강조했다. 이 상호작용과정이나 인과적 순환작용 과정의 연구에서 Kelley와 공동연구자들(1983, p. 42)이 중요시한 점은 사건의 분석인데, 여기서 사건(p. 24)이란 개인내의 변화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사건들을 분류할 수 있는 대표적 범주로서 행위, 사고, 및 감정을 들고 있다.

필자(1985, 1986a)의 선행연구에서도 우정이나 애정관계 자체가 한 두 단면에 의해서 파악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단면 각각의 시간에 따른 변화, 일정한 시점들에서의 다단면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인과적 영향관계의 해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서 우정이나 애정관계의 발전이론들인 Altman과 Taylor(1973)의 사회적 침투이론, Huesmann과 Levinger(1976)의 점증적 행동교환이론, Murstein(1971)의 자극-가치-역할 이론 등의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필자가 이처럼 주장하는 근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ltman과 Taylor(1973)의 사회적 침투이론에서는 친밀한 관계로 진전되는 전과정에서 자기노출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필자가 해석하기로는 이 이론은 동일 시점내에서 다른 단면과의 관련성이나 시점간 변화에서 자기노출이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Huesmann과 Levinger(1976)의 점증적 행동교환이론에서는 대인행동의 변화가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면으로서, 깊은 대인관계로 진전됨에 따라서 개인과 대상인물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동일한 행동이 지니는 보상가가 달라지리라고 가정한다. 필자가 해석하기로는 이 주장은 행동적 단면이 다른 단면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시간적으로는 중요시되는 대인행동이 변화되리라고 가정함을 의미한다. Murstein(1971)이 이성관계의 하나로서 부부관계로의 변화를 다룬 자극-가치-역할이론은 시계열로 볼 때 양자관계가 진전됨에 따라서 신체적 매력, 가치의 유사성,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큰 중요성을 지닌다고 가정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이론들은 동일시점에서 특정한 단면의 중요성과 시계열에서 다음 시점으로 진전될 때 특정한 단면의 상대적 영향력을 가정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대인관계가 진전되는 일정한 시점에서 여러 단면의 상대적 중요성이나 시점간에서 여러 단면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아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필자는 이 관점에 근거를 두고 선행연구(1985)에서 우정관계가 진전되는 14개월 간의 세 시점에서 대인행동, 자기노출 및 대인매력의 세 단면에서의 변화, 세 시점 각각에서의 세 단면의 상호관련성, 그리고 시점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부분적으로 다룬 바가 있다.

이 논문은 필자의 일관된 관점에서 선행연구와 상호보완적 의미를 지니도록 구상된 후속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연구는 선행연구(1985, p. 187-8)에서 지적한 제한점이나 개선점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는데, 선행연구와 관련지워서 이 연구의 특징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행동, 자기노출 및 대인매력의 세 단면만을 다루는데 따른 문제점을 피하고자 한다. 이 세 단면은 개인과 대상인물과의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난 객관적 행동들만을 특히 강조했다라고 보고, 우정관계의 진전과 깊이 관련 있는 단면으로서 양자관계나 상대방에 대한 다양한 평가나 추론을 다룬 주관적 경험들을 포함시켰다.

둘째, 우정관계에서 양자간의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는 3개월 동안의 비교적 초기단계를 다룬다. 선행연구에서는 14개월의 비교적 긴 기간 동안의 우정관계의 진전과정을 다루었는데, 초기 단계를 다룸으로써 우정형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선행연구와 연결짓는 보완적 의미를 지니리라고 기대한다.

셋째, 우정관계의 형성 후 관계가 지속된 경우를 지속되지 못한 경우와 대비시켜서 다룬다. 선행연구에서는 우정관계가 진전된 경우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단면간 차이나 시간 경과에 따른 효과가 진전된 우정관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인지 다른 대인관계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지 알기 어려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정관계가 진전된 집단을 진전되지 못한 집단과 비교하여 진전 여부에 관련된 특징들을 기려내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비교해서 이 연구는 이러한 특징적 차이점을 지니지만 검증하고자 하는 기본가설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와 동일하다. 또한 우정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면들이 가려지고 가설이 설정된 배경은 선행연구와 동일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반복해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첫째, 우정관계형성 후 3개월간은 진전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인행동, 자기노출, 대인매력 및 양자관계에 대한 만족 등에서는 양적 교류나 친밀도가 모두 높은 수준으로 변화될 것이다.

둘째, 친교의 초기 단계에서는 양자간에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여되기 때문에 단편적 정보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한 단면들이 대인관계의 진전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초기 단계에서는 피상적이며 단편적 요소들이 급속히 증가되고 이 요소들의 증가가 관계의 진전여부에도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후기 단계에서는 깊은 교류를 통해서만 추론될 수 있는 관계만족이나 장래예견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째, 시간경과에 따라서 양자간 상호작용의 양이나 친밀도가 증가되는 현상이나 후기단계에서 깊은 교류를 통해서 추론될 수 있는 단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우정관계가 지속되지 못한 경우보다 진전된 경우에 더 현저할 것이다. 즉, 위의 첫째 및 둘째 가설의 내용은 진전여부×시점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일 것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는데 요구되는 분석내용도 선행연구와 동일하다. 비진전집단이 첨가된 점을 고려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시 적으면, (1)우정의 진전과정에서 각 단면이 시점 및 진전여부에 따라서 변화되는 양상을 알아보고, (2)일정한 시점내에서 각 단면이 다른 단면들을 예언하는데 있어서 각각 기여하는 정도를 알아보며, (3)일정한 시점에서의 여러 단면들이 다음 시점에서의 각 단면을 예언하는데 상대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및 절차

절차 전문대학에 입학한 후 새로 사귀게 된 세 사람의 가장 친한 동성친구 가운데 세 시점에 계속해서 동일인물을 가장 친한 친구로 선정한 47명과 첫 시점 이후에는 다른 인물을 선정한 33명 사이에 우정관계의 몇 단면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보고케 했다. 두 집단 모두 동일인물과의 상호작용에 관해 세 시점에 걸쳐서 우정관계 단면들을 측정하였으므로 시점 변인을 반복측정한 2 (진전여부) × 3 (시점) 요인설계였다.

조사시점 1987년 입학 후 3월 중순, 4월 하순, 그리고 6월 초순의 세 차례에 걸쳐서 5주 간격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단면별 측정치: 1) 행동 선행연구(한덕용, 1982, 1985, 1986 a)에서 의미가 독립적이며 발생빈도가 높은 70개의 두 사람간의 대인행동이 가려졌는데, 이 연구에서는 새로 5개 행동을 추가하여 75개 행동목록을 사용했다. 새로 추가된 행동은 약속하다, 함께 지내다, 주거나 받다, 빌리거나 빌려주다 및 토론하다로서 우정관계에서 발생빈도가 높다고 판단된 행동들이었다. 발생빈도의 측정은 조사시점으로부터 1주일 이전의 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행동별 빈도를 적게 하였다. 자료분석에 사용된 범주별 행동 측정치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행동 빈도는 75개 행동 중 체크된 전체 행동의 수이며, (2) 긍정적

행동 빈도는 75개 행동가운데 친구관계를 유지하거나 촉진시키는 35개 행동 각각의 발생 빈도이고, (3)부정적 행동 빈도는 75개 행동가운데 친구관계를 해치거나 방해가 되는 25개 행동 각각의 발생 빈도로 측정했다. 한편, (4) 행동차원별 빈도분석에서는 선행연구(한덕웅, 1982)에서 밝혀진 대인행동의 세 기본차원에 각각 높게 부하된 5개 행동들 가운데 체크된 행동수로서, 측정에 사용된 각 요인별 행동들은 다음과 같다.

제 1 차원은 결합 - 분리차원으로서 ①결합행동에는 희생하다, 아끼다, 놀다, 돌보다, 위해준다 이며, ②분리행동으로는 싫어하다, 경멸하다, 귀찮아하다, 경계하다, 불신하다이다. 제 2 차원은 수용 - 적대차원으로서 ①수용행동에는 친해지다, 협조하다, 반가워하다, 믿다, 칭찬하다이며, ②적대행동으로는 다투다, 미워하다, 조롱하다, 욕하다, 싸우다이다. 제 3 차원인 손 아랫 사람 행동 - 손 윗 사람 행동에서 ①손 아랫 사람 행동으로는 아부하다, 복종하다, 존경하다, 따르다, 배우다이며, ②손 윗 사람 행동으로는 꾸짖다, 충고하다, 때리다, 가르치다, 명령하다이다.

(5)행동별 발생 백분율은 진진집단과 비진진집단의 사례수를 기준으로 하여 75개 각 행동에 체크한 피험자의 수로부터 산출했다.

2) 자기노출 별도의 대학생 집단으로부터 척도치를 얻은 40개의 화제항목을 사용했다(한덕웅, 1981, 미발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 이전의 기간 동안에 상대방과 실제로 대화를 나눈 화제를 모두 고르도록 했다. 세부적 노출 측정치들은 다음과 같다. (1)자기노출 내용의 다양성: 40개 화제항목 중 체크된 화제의 수. (2)최고 자기노출: 체크된 화제 가운데서 가장 친밀도가 높은 화제항목의 친밀도 측정치. (3)평균 자기노출: 체크된 화제들의 척도치 평균. (4)대화내용의 친밀도 범위: 최고 노출 항목에서 최하 노출 항목 척도치를 뺀 값. (5)자기노출의 최고 요망도: 대화한 내용 가운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도가 가장 높은 화제항목의 바람직한 정도.

3) 대인매력 한덕웅(1978, 1980, 1985)의 매력척도가 사용되었는데, 이 척도에서는 대인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서 다음의 네 수준별로 매력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 1 수준은 ①이 사람의 인상이 어떻습니까? ②이 사람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다면 어떻겠습니까?. 제 2 수준은 ①개인적 친구로서가 아니라 자주 접촉해야 할 사람으로서는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②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상대로서는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제 3 수준은 ①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공부할 함께 할 친구로서는 어떻겠습니까? ②이 사람을 당신의 가장 가

까운 친구그룹에 넣어주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 4 수준은 ①이 사람이 평생 사귄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는 어떻겠습니까? ②이 사람이 개인적 고민을 상의할 상대로서는 어떻습니까?의 문항에 반응토록 하였다. 각 수준별 매력은 “매우 좋다”부터 “매우 싫다”까지 9점 평정척도에 반응한 측정치로부터 산출하였다.

4) 관계지각 (1)형평: 총괄지표로서 두 사람 중 상대적으로 더 유익했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상대방이 더 유익했다”부터 “내가 더 유익했다”까지 9점 척도에 평정. (2)장래의 관계 예견: 상대방과 계속 사귀게 될 때, 피조사자에게 좋거나 나쁜 일이 생길 정도를 “매우 나빠질 것이다”부터 “매우 좋아질 것이다”까지 9점 척도에 평정. (3) 우정관계에 대한 만족: 상대방과의 우정관계에서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정도를 9점 척도에서 평정. (4)상대방의 자신에 대한 호감 판단: 상대방이 피조사자를 좋아하거나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9점 척도에 평정. (5)장차 도움을 받으리라는 기대와 도와줄 의도: 1년 후 상대로부터 도움을 받으리라는 기대와 도와줄 의도를 각각 9점 척도에서 평정. (6)이상적 친구와 동료와의 성격 유사성: 한덕웅(1986, 미발표)의 자료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성격 형용사 33개 가운데 피조사자의 이상적 친구상과 상대방의 성격을 각각 10개씩 고르도록 하여 공통적으로 체크된 성격 형용사의 수로 성격 유사성을 측정. (7) 귀인: 연구자와 대학원생들로부터 계속 친하거나 덜 친하게 되는 원인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된 27쌍의 문항들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계속 친하거나 덜 친하게 된 원인을 있는대로 고르도록 했다.

시점내 및 시점간 중다예언 중다예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누락자료를 제외하고 진전집단 39명과 비진전집단 28명으로서 모두 67명으로부터 얻었다. 중다회귀분석에 사용된 측정치는 대인매력, 전체행동, 긍정적 행동, 부정적 행동, 자기노출 내용의 다양성, 평균 자기노출, 최고 자기노출, 노출의 최고 요망도, 관계만족, 관계예견, 호감지각, 도움기대, 도움의도, 형평 및 이상상과의 성격 유사성 등 15개였다. 이 가운데 우정관계의 중요 단면으로 보고 준거변인으로 삼은 요인은 대인매력, 전체행동, 평균자기노출, 형평, 관계만족, 미래예견, 호감지각 및 도움기대로 8개 변인이었다. 따라서 각 준거변인에 대한 중다예언에는 준거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측정치가 예언요인으로 사용되었다.

조사대상 전문대학 입학생 중 424명에게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가운데 입학 전에는 알지 못한 학생들로서 동일 인물을 세 조사시점에 걸쳐 계속해서 가

장 친한 동성친구로 선정한 47명(진전집단)과 첫 조사시점 이후에는 다른 인물을 선정한 33명(비진전집단)이 분석의 대상이었다. 반응자료에서 일부 누락이 있는 자료는 각 측정치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 과

진전여부와 친교기간에 따른 변화 우정관계가 진전된 집단과 진전되지 못한 집단을 대비시키면서 시간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우정관계에서 행동, 자기노출, 매력 및 관계지각의 네 범주로 나누어 결과를 제시한다.

1) 행동 우정관계에서 대인행동의 양적분석을 위해 우정관계의 진전여부에 의해서 집단을 구분하고 이 두 집단별로 세 시점에서 얻은 행동 측정치들을 제시했는데, 평균은 표 1에서, 그리고 변량분석 결과는 표 2에서 제시되어 있다.

(1) 전체행동 : 우정관계가 진전된 사람들은 진전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행동을 교류했는데 ($F_{1,73} = 7.69, p < .01$), 이 경향은 세 시점 각각에서 모두 같았다(1시점, $F_{1,73} = 4.47, p < .05$; 2시점, $F_{1,73} = 4.61, p < .05$; 3시점, $F_{1,73} = 8.44, p < .01$). 따라서 교류한 전체행동수만 보더라도 우정관계의 초기 형성단계에서부터 우정이 진전된 관계에서는 진전되지 못한 관계보다 더 활발한 행동교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친교기간이 경과할수록 교류한 전체행동수가 증가되었다 ($F_{2,146} = 5.64, p < .01$; $F_{time, 1,73} = 10.74, p < .01$). 세 시점간에는, 사권지 3주와 8주 사이에서만 전체행동수가 증가했다(1시점 대 2시점, $t = 2.42, df = 74, p < .05$; 1시점 대 3시점, $t = 3.30, df = 74, p < .01$). 이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전체행동수가 증가하지만, 초기 우정형성단계에서 행동교류가 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후에는 증가추세가 둔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진전여부별로 세 시점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진전여부×시점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못했으나, 진전집단에서만은 세 친교시점에 따라서 전체 행동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_{2,84} = 7.70, p < .01$). 이 결과는 우정관계가 진전된 집단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교류하는 행동이 증가됨을 보고한 선행연구(한덕웅, 198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2) 긍정적 행동 : 진전집단에서는 비진전집단에 비해서 긍정적 행동이 더 많았는데 ($F_{1,73} = 10.09, p < .01$). 이 경향은 세 시점 각각에서 모두 같았다(1시점, $F_{1,73} = 4.09, p < .01$; 2시점, $F_{1,73} = 8.62, p < .01$; 3시점, $F_{1,73} = 9.$

표 1 행동측정치외 조건별 평균

측정치 시점 진전여부	전 체 행 동				긍 정 적 행 동				부 정 적 행 동			
	1	2	3	전체	1	2	3	전체	1	2	3	전체
진 전	19.81 (9.35)	23.23 (11.90)	26.40 (14.42)	23.15 (12.37)	12.95 (5.92)	15.26 (7.05)	15.70 (8.43)	14.64 (7.31)	1.05 (2.03)	2.12 (4.09)	3.42 (4.55)	2.19 (3.85)
비 전 전	15.47 (7.70)	17.34 (11.17)	16.72 (13.60)	16.51 (11.12)	10.25 (5.26)	10.53 (6.44)	10.00 (6.52)	10.26 (6.11)	.44 (.83)	2.03 (4.30)	2.41 (5.13)	1.63 (3.98)
전 체	17.96 (8.95)	20.72 (11.95)	22.27 (14.87)	20.32 (12.30)	11.80 (5.80)	13.24 (7.19)	13.27 (8.18)	12.77 (7.16)	.79 (1.66)	2.08 (4.18)	2.99 (4.83)	1.95 (3.92)

측정치 시점 진전여부	결 합 행 동				분 리 행 동				수 용 행 동			
	1	2	3	전체	1	2	3	전체	1	2	3	전체
진 전	1.07 (1.11)	1.67 (1.29)	1.88 (1.51)	1.54 (1.36)	.21 (.46)	.47 (1.02)	.58 (1.26)	.42 (.99)	3.00 (1.40)	3.14 (1.59)	3.28 (1.59)	3.14 (1.53)
비 전 전	.88 (.86)	1.22 (1.14)	.97 (1.02)	1.02 (1.02)	.09 (.38)	.44 (.90)	.34 (.99)	.29 (.82)	2.47 (1.30)	2.13 (1.56)	2.25 (1.68)	2.28 (1.53)
전 체	.99 (1.01)	1.48 (1.25)	1.49 (1.40)	1.32 (1.25)	.16 (.43)	.45 (.97)	.48 (1.16)	.36 (.92)	2.77 (1.38)	2.70 (1.66)	2.84 (1.71)	2.77 (1.59)

측정치 시점 진전여부	적 대 행 동				손윗사람행동				손아랫사람행동			
	1	2	3	전체	1	2	3	전체	1	2	3	전체
진 전	.09 (.29)	.28 (.87)	.60 (.94)	.33 (.79)	.42 (.87)	.88 (.92)	1.14 (1.42)	.81 (1.14)	.67 (1.07)	1.02 (1.36)	1.02 (1.23)	.91 (1.24)
비 전 전	.06 (.24)	.38 (.86)	.44 (1.12)	.29 (.84)	.38 (.70)	.66 (.99)	.56 (1.00)	.53 (.91)	.34 (.54)	.66 (1.02)	.66 (1.13)	.55 (.95)
전 체	.08 (.27)	.32 (.87)	.53 (1.02)	.31 (.81)	.40 (.80)	.79 (.96)	.87 (1.29)	.69 (1.06)	.53 (.90)	.87 (1.24)	.87 (1.20)	.76 (1.13)

주 :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임.

표 2 행동특정치의 변량분석 결과

	전 체 행 동			긍 정 적 행 동			부 정 적 행 동		
	F	df	유의수준	F	df	유의수준	F	df	유의수준
진전여부	7.69	1,73	$p < .01$	10.09	1,73	$p < .01$	63	1,73	$p < .001$
	(315.40)			(104.39)			(28.29)		
시 점	5.64	2,146	$p < .01$	2.17	2,146	n.s.	10.91	2,146	n.s.
	(51.92)			(18.22)			(8.06)		
진전×시점 상호작용	2.66	2,146	n.s.	2.35	2,146	n.s.	.49	2,146	n.s.

	결 합 행 동			분 리 행 동			수 용 행 동		
	F	df	유의수준	F	df	유의수준	F	df	유의수준
진전여부	5.26	1,73	$p < .025$.60	1,73	n.s.	9.86	1,73	$p < .01$
	(2.85)			(1.47)			(4.11)		
시 점	6.84	2,146	$p < .01$	4.34	2,146	$p < .05$.23	2,146	n.s.
	(.77)			(.53)			(1.53)		
진전×시점 상호작용	3.16	2,146	$p < .05$.39	2,146	n.s.	.96	2,146	n.s.

	적 대 행 동			손 윗사 람 행 동			손 아랫사 람 행 동		
	F	df	유의수준	F	df	유의수준	F	df	유의수준
진전여부	.06	1,73	n.s.	2.47	1,73	n.s.	3.11	1,73	n.s.
	(1.02)			(1.78)			(2.23)		
시 점	8.14	2,146	$p < .001$	6.02	2,416	$p < .01$	3.41	2,146	$p < .05$
	(.45)			(.72)			(.78)		
진전×시점 상호작용	.71	2,146	n.s.	1.88	2,416	n.s.	.01	2,146	n.s.

주 : 괄호안의 숫자는 MSe임.

83, $p < .01$). 한편, 진전여부×시점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못했으나, 진전집단에서만은 세 친교시점에 따라서 긍정적 행동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 = 4.04$, $p < .05$).

이 결과로부터 진전집단에서는 교류한 긍정적 행동수가 우정관계가 시작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비진전집단보다 많으며, 선행연구(한덕용, 1985)와 일치되게 진전집단에서만은 세 친교시점에 따라서 긍정적 행동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3) 부정적 행동 : 친교기간이 경과할 수록 부정적 행동이 증가하였으며 ($F_{2,146} = 10.91, p < .001; F_{1,146} = 19.31, p < .001$), 이 경향은 초기시점부터 계속해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1시점 대 2시점, $t = 2.72, df = 74, p < .05$; 2시점 대 3시점, $t = 2.22, df = 74, p < .05$). 이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인데, 성공적으로 우정이 진전된 집단 ($F_{2,84} = 8.88, p < .01$)은 물론이고 우정이 진전되지 못한 집단 ($F_{2,62} = 3.63, p < .01$)에서도 친교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부정적 행동이 더 많이 교류되었음을 의미한다.

(4) 대인행동 차원별 분석 : 우정관계에서 나타나는 대인행동의 질적분석은 대인관계의 행동차원 범주별 분석과 단일행동의 발생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양자간 대인행동 구조의 기본차원을 결합-분리, 수용-적대 및 손윗사람 행동-손아랫사람 행동 요인으로 구분했을 때, 각 요인에서의 행동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결합-분리행동 : 진전집단에서는 비진전집단에 비해서 결합행동이 더 많았다 ($F_{1,73} = 5.26, p < .05$). 또한 세 친교시점에 따라서 결합행동이 증가했다 ($F_{2,146} = 6.83, p < .01; F_{1,146} = 10.28, p < .01$). 시점간 차이를 보면, 사권지 3주와 8주 사이에서만 결합행동이 증가했다(1시점 대 2시점, $t = 3.43, df = 74, p < .01$; 1시점 대 3시점, $t = 3.23, df = 74, p < .01$)

한편, 비진전집단에서와는 달리 ($F < 1$) 진전집단에서는 세 시점의 경과에 따라서 결합행동수가 달랐으며 ($F_{2,84} = 7.87, p < .001$), 3시점에서는 진전집단에서 비진전집단보다 결합행동이 더 많은 ($F_{1,73} = 8.53, p < .01$) 진전여부 \times 시점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다 ($F_{2,146} = 3.16, p < .05$).

분리행동빈도 역시 친교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증가했는데 ($F_{2,146} = 4.34, p < .05; F_{1,146} = 6.21, p < .05$), 사권지 3주와 8주 사이에서만 증가되었다(1시점 대 2시점, $t = 2.66, df = 74, p < .05$; 1시점 대 3시점, $t = 2.51, df = 74, p < .05$).

한편, 결합-분리행동 차원의 행동발생빈도를 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 결합행동 ($\bar{X} = 1.32$)이 분리행동 ($\bar{X} = .36$) 보다 더 많다 ($t = 5.33, df = 74, p < .01$). 이 경향은 진전집단 ($t = 3.73, df = 42, p < .01$)과 비진전집단 ($t = 3.04, df = 31, p < .01$)에서 모두 같았으며, 세 시점 각각에서도 마찬가지였다(1시점, $t = 6.38, df = 74, p < .01$; 2시점, $t = 5.72, df = 74, p < .01$; 3시점, $t = 4.81, df = 74, p < .01$).

② 수용 - 적대행동 : 진전집단에서는 비진전집단에 비해서 수용행동이 더 많았다($F_{1,73} = 9.86, p < .01$). 시점별로는 진전집단에서는 비진전집단보다 사권지 8주($F_{1,73} = 7.39, p < .01$)와 13주($F_{1,73} = 7.14, p < .01$)에 각각 수용행동이 더 많았다.

적대행동 빈도는 세 친교시점에 따라서 증가하였는데($F_{2,146} = 8.14, p < .001$; $F_{lin,1,73} = 14.69, p < .001$), 첫 조사시점부터 계속해서 적대행동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1시점 대 2시점, $t = 2.37, df = 74, p < .05$; 2시점 대 3시점, $t = 2.04, df = 74, p < .05$). 한편, 진전여부×시점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진전집단에서만은 1시점($\bar{X} = .09$), 2시점($\bar{X} = .28$), 그리고 3시점($\bar{X} = .60$)에 걸쳐서 적대행동이 계속 증가한 반면($F_{2,84} = 6.81, p < .01$), 비진전집단에서는 1시점($\bar{X} = .06$)과 2시점($\bar{X} = .38$) 사이에는 증가되었으나 3시점($\bar{X} = .44$)에서는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용 - 적대행동차원에서 수용행동과 적대행동의 상대적 빈도차이를 보면, 전체적으로도 수용행동($\bar{X} = 2.77$)이 적대행동($\bar{X} = .31$)보다 많다($t = 11.71, df = 74, p < .01$). 또한, 이러한 차이는 진전집단($t = 10.41, df = 42, p < .01$)과 비진전집단($t = 6.42, df = 31, p < .01$)은 물론이고 세 시점에 걸쳐서도 모두 같았다.(1시점, $t = 16.81, df = 74, p < .001$; 2시점, $t = 10.82, df = 74, p < .01$; 3시점, $t = 10.04, df = 74, p < .01$).

③ 손윗사람 행동 - 손아랫사람 행동 : 지배 - 복종의 행동수를 다룬 이 차원에서 손윗사람 행동빈도는 세 시점의 경과에 따라서 증가하였는데($F_{2,146} = 6.02, p < .01$; $F_{lin,1,73} = 10.51, p < .01$), 사권지 3주와 8주 사이에서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1시점 대 2시점, $t = 2.97, df = 74, p < .01$; 1시점 대 3시점, $t = 3.26, df = 74, p < .01$). 진전여부×시점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진전집단에서만은 세 시점에 따라서 윗사람으로서의 행동이 달랐다($F_{2,84} = 6.91, p < .01$).

손아랫사람 행동빈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증가하였는데($F_{2,146} = 3.41, p < .05$; $F_{lin,1,73} = 5.60, p < .05$), 초기시점에서만 크게 증가하였다(1시점 대 2시점, $t = 2.21, df = 74, p < .05$; 1시점 대 3시점, $t = 2.38, df = 74, p < .05$).

(5) 행동별 발생백분율 : 양자관계에서 나타나는 대인행동을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표 3에는 각 시점과 진전여부에 따라서 정리한 행동별 발생백분율이 제시됐다. 우정관계의 진전여부와 친교시점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기 쉽도록 특징점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④ 진전여부에 따른 차이 : 먼저 우정관계의 진전여부나 시점을 고려하지 않

표 3. 행동별 발생 백분율

행	시점	진전여부		진전 (n=43)				시점 차이	비진전 (n=32)				시점 차이	진전여부	
		1	2	3	전체	1	2		3	전체	차이	차이			
														1	2
불안해하다	하	13.95	23.25	18.60	18.60	6.24	6.24	9.39	7.29						*
무시하다	하	6.69	11.64	11.64	10.09	3.12	12.51	9.39	8.33						
동정하다	하	3.45	13.95	13.95	10.85	6.24	9.39	3.12	6.25						
도와주다	하	37.20	62.79	53.49	51.16	*	37.50	43.74	43.74	41.67					
아부하다	하	11.64	11.64	20.94	14.73		.00	3.12	15.63	6.25		*			
미안해하다	하	44.19	44.19	39.54	42.64		24.99	24.99	21.87	23.96					*
늘절문하다	하	58.14	83.73	79.08	73.64	*	56.25	65.64	53.13	58.33					
도망가다	하	62.79	58.14	53.49	58.14		50.01	28.14	24.99	34.58	*	*			
보호하다	하	.00	6.99	6.99	4.65		.00	.00	9.39	3.13	*	*			
가르치다	하	4.65	18.60	18.60	13.95	*	.00	12.51	12.51	8.33	*	*			
가르치다	하	13.95	32.55	32.55	25.58		9.39	31.26	9.39	16.67	*	*			
믿다(신뢰하다)	하	58.14	62.79	62.79	61.24		37.50	37.50	40.62	38.54					*
협조하다	하	79.08	79.08	83.73	80.62		62.49	59.37	65.64	62.50					
만나다	하	76.74	69.78	79.08	75.19		78.12	65.64	59.37	67.71					
그리워하다	하	16.29	20.94	23.25	20.16		6.24	12.51	6.24	8.33					*
보살피다	하	9.30	9.30	23.25	13.95	*	.00	9.39	9.39	6.25					
귀여워하다	하	18.60	25.59	27.90	24.03		6.24	9.39	15.63	10.42					*
반가워하다	하	72.09	79.08	74.43	75.19		71.88	62.49	56.25	63.54					
오해하다	하	6.99	9.30	23.25	13.18	*	.00	6.24	9.39	5.21					
신경질부리다	하	9.30	13.95	32.55	18.60	**	6.24	6.24	12.51	8.33					
의논하다	하	88.38	81.39	74.43	81.40		65.64	75.00	62.49	67.71					
인사하다	하	86.04	67.44	76.74	76.74		71.88	71.88	62.49	68.75					
존경하다	하	6.99	13.95	23.25	14.73		3.12	12.51	9.39	8.33					
충고하다	하	16.29	34.89	44.19	31.78	*	12.51	12.51	21.87	15.63					*
충경벌하다	하	.00	9.30	6.99	5.43		3.12	12.51	12.51	9.38					
즐거이다	하	65.13	58.14	69.78	64.34		46.89	53.13	62.49	54.17					
자랑하다	하	16.29	34.89	27.90	26.36		6.24	12.51	18.75	12.50					*
화내다	하	4.65	16.29	34.89	18.60	*	3.12	12.51	15.63	10.42					
복종하다	하	9.30	6.99	11.64	9.30		9.39	12.51	9.39	10.42					
농담하다	하	74.43	83.73	88.38	82.17		71.88	62.49	71.88	68.75					
눈치보하다	하	11.64	4.65	11.64	9.30		6.24	3.12	6.24	5.21					
돌아보하다	하	4.65	13.95	20.94	13.18	*	3.12	6.24	3.12	4.17					
비난하다	하	27.90	34.89	39.54	34.11		9.39	28.14	21.87	19.79					
악수하다	하	2.34	6.99	6.99	5.43		.00	6.24	9.39	5.21					
악수하다	하	39.54	27.90	27.90	31.78		37.50	15.63	9.39	20.83	**	**			
싸우다	하	.00	2.34	9.30	3.88	*	.00	3.12	6.24	3.13					
다투다	하	4.65	11.64	20.94	12.40		3.12	12.51	9.39	8.33					
회생하다	하	2.34	6.99	20.94	10.08	**	.00	3.12	9.39	4.17					

(표3에서 계속)

진전여부 시점 행 동		진전 (n=43)				시점 차이	비진전 (n=32)				시점 차이	진전여부 차이	
		1	2	3	전체		1	2	3	전체			
따	르	다	13.95	20.94	23.25	19.38		6.24	12.51	9.39	9.38		
피	로	다	4.65	6.99	13.95	8.53		3.12	6.24	3.12	4.17		
속	이	다	2.34	11.64	9.30	7.75		3.12	9.39	15.63	9.38		
전	화	다	9.30	20.94	32.55	20.93	*	3.12	15.63	12.51	10.42		
명	령	다	6.99	4.65	16.29	9.30		12.51	3.12	3.12	6.25		
위	해	다	13.95	27.90	27.90	23.26		18.75	15.63	12.51	15.63		
미	워	다	2.34	6.99	9.30	6.20		.00	15.63	12.51	9.38	*	
싫	어	다	2.34	4.65	6.99	4.65		.00	12.51	12.51	8.33	*	
친	해	다	65.13	55.80	55.60	58.91		59.37	40.62	34.38	44.79	*	
불	신	다	2.34	11.64	11.64	8.53		3.12	6.24	3.12	4.17		
때	리	다	2.34	6.99	6.99	5.43		3.12	9.39	9.39	7.29		
이	야	다	83.73	83.73	95.34	87.60		87.51	78.12	68.76	78.13		
서	먹	다	16.29	9.30	23.25	16.28		15.63	12.51	18.75	15.63		
동	행	다	86.04	79.08	76.74	80.62		78.12	71.88	56.25	68.75		
조	롱	다	.00	2.34	6.99	3.10		6.24	.00	9.39	5.21		
감	사	다	46.50	62.79	62.79	57.36		31.26	31.26	21.87	28.13	**	
무	서	다	.00	2.34	2.34	1.55		.00	3.12	6.24	3.13		
까	불	다	23.25	18.60	37.20	26.36	*	6.24	9.39	9.39	8.33	**	
욕	하	다	4.65	4.65	13.95	7.75		.00	9.39	12.51	7.29	*	
귀	찮	다	11.64	11.64	11.64	11.64		3.12	3.12	6.24	4.17		
겹	주	다	2.34	2.34	9.30	4.65		.00	6.24	9.39	5.21		
부	탁	다	50.01	55.80	53.49	52.71		24.99	21.87	31.26	26.04	**	
기	빠	다	62.79	81.39	69.78	71.32	*	65.64	59.37	53.13	59.38		
질	투	다	6.99	11.64	16.29	11.63		.00	15.63	12.51	9.38	*	
꾸	깃	다	2.34	9.30	16.29	9.30		.00	9.39	12.51	7.29		
배	우	다	32.55	37.20	27.90	32.56		15.63	24.99	31.26	23.96		
경	계	다	6.99	9.30	13.95	10.08		3.12	3.12	3.12	3.12		
의	지	다	18.60	25.59	24.89	26.36		12.51	6.24	9.39	9.38	**	
격	정	다	16.29	27.90	34.89	26.36		18.75	24.99	24.99	22.92		
칭	찬	다	30.24	41.85	53.49	41.86	*	12.51	12.51	31.26	18.75	*	**
기	다	다	55.80	1.80	69.78	62.02		53.13	50.01	40.62	47.92		
피	하	다	.00	9.30	9.30	6.20		3.12	12.51	6.24	7.29		
약	속	다	44.19	48.84	60.48	51.16		31.26	34.38	36.15	34.38		
함	계	다	72.09	67.44	74.43	71.32		46.89	36.15	36.15	40.63	**	
주	거	다	44.19	51.15	46.50	47.29		28.14	43.74	40.62	37.50		
빌	리	다	44.19	62.79	48.84	51.94		34.38	59.37	46.89	46.88		
토	론	다	48.84	41.85	55.80	48.84		37.50	46.89	34.38	39.58		

주 : 숫자들은 진전집단과 비진전 집단 각각의 사례수에 의한 백분율임.

고 전체적으로 볼 때, 50% 이상 발생한 행동만을 적어보면 이야기하다(83.56), 농담하다(76.44), 의논하다(75.56), 동행하다(75.56), 인사하다(73.33), 협조하다(72.89), 만나다(72.80), 반가워하다(70.22), 놀다(67.11), 기뻐하다(66.22), 즐기다(60.00), 함께지내다(58.22), 기다리다(56.00), 친해지다(52.89), 믿다(51.56) 등의 15개 행동이었다.

그러나, 진전집단에서 50% 이상의 발생을 보인 행동들 가운데는 전체집단보다 질문하다(58.14), 감사하다(57.36), 부탁하다(52.71), 빌리거나 빌려주다(51.94), 도와주다(51.16), 약속하다(51.16) 등의 6개 행동이 추가되어 21개 행동이었다.

한편, 비진전집단에서는 50% 이상 발생한 행동들은 전체집단보다 기다리다(47.92), 친해지다(44.79), 함께지내다(40.63), 믿다(38.54)의 4개 행동이 제외되어 모두 11개 행동이었으며, 진전집단 보다는 10개 행동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행동적 교류가 낮음을 보인다.

우정관계가 진전되거나 진전되지 못한 두 집단에서 50% 이상 발생한 행동들을 질적으로 비교했을 때, 행동의 친밀도에서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행동들을 보면, 주로 양자간의 피상적 접촉을 나타내는 행동들이다. 그러나 진전집단에서는 비진전집단과는 달리 함께지내다, 기다리다, 믿다, 감사하다, 친해지다, 질문하다, 부탁하다, 빌리거나 빌려주다, 도와주다, 약속하다 등의 10개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 행동들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나 능동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양자관계를 촉진시키는 내용으로서 비교적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임을 알 수 있다.

진전여부에 따른 각 행동별 차이를 χ^2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진전집단에서는 비진전 집단보다 불안해하다, 미안해하다, 질문하다, 믿다, 그리워하다, 귀여워하다, 충고하다, 자랑하다, 감사하다, 까불다, 부탁하다, 의지하다, 칭찬하다, 함께지내다 등의 14개 행동에서 발생백분율이 유의하게 더 높다. 이 행동들 가운데는 긍정적 행동들 이외에도 불안해하다, 까불다, 자랑하다 등의 긴장요소도 함께 개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14개 행동들은 우정관계의 진전여부를 행동적 측면에서 특징적으로 구별해주는 행동들로 볼 수 있다.

②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 : 먼저 진전집단과 비진전집단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볼 때, 1 시점에서 50% 이상의 발생을 보인 행동들은 이야기하다(85.33), 동행하다(82.67), 인사하다(80.00), 의논하다(78.67), 만나다(77.33), 농담하다(73.33), 협조하다(72.00), 반가워하다(72.00), 기뻐하다(64.00), 친해지다(62.67), 함께지내다(61.33), 놀다(57.33), 질문하다(57.33), 즐기다(57.33), 기다리다(54.67) 등의 15개 행동이었다. 2 시점에서는 믿다(52.00), 빌리

거나 빌려주다(61.33)가 추가되었고, 질문하다(45.33)와 친해지다(49.33)가 제외되었다. 3시점에서는 빌리거나 빌려주다(48.00)가 제외되어서, 50% 이상 발생된 행동은 모두 14개였다.

진전집단에서는 1시점에서 50% 이상 발생을 보인 행동들에는 전체집단에서 50%의 빈도를 보인 행동이외에 민다(58.14)가 포함되어 16개 행동이었다. 2시점에서는 도와주다(62.79), 감사하다(62.79), 빌리거나 빌려주다(62.79), 부탁하다(55.81), 주거나 받다(51.16) 등의 5개 행동이 추가되었다. 3시점에서는 약속하다(60.47), 토론하다(55.81), 칭찬하다(53.49)가 추가되어 모두 24개 행동이 나타났다. 비교적 피상적 접촉행동이 대부분이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믿음, 감사, 약속, 토론, 칭찬의 친밀한 행동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비진전 집단에서는 1시점에서 전체집단의 50% 이상 발생한 행동들 가운데 발생백분율이 50%에 이르지 못하는 즐기다(46.89)와 함께지내다(46.89)가 제외된 13개 행동이 나타났다. 2시점에서는 즐기다(53.13)와 빌리거나 빌려주다(59.38)가 새로 추가되었으나 질문하다(28.13)와 친해지다(40.63)가 제외되었다. 3시점에서는 기다리다(40.63)와 빌리거나 빌려주다(46.88)가 제외되었다.

50% 이상 발생한 행동 수만 보더라도 두 집단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난다. 즉, 진전집단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행동이 많아진 반면(16→21→24), 비진전집단에서는 행동들이 적어졌다(13→13→11). 그리고 3시점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유의하였다($\chi^2=4.87, df=1, p<.05$). 또한 3시점에서 50% 이상의 발생을 보인 행동을 보면, 진전집단에서는 비진전 집단과는 달리 함께지내다, 친해지다, 민다, 기뻐하다, 도와주다, 감사하다, 부탁하다, 주거나 받다, 약속하다, 토론하다, 칭찬하다, 기다리다 등의 성질상 깊은 친밀성을 나타내는 행동들이 더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0% 이상 발생된 행동만을 보더라도, 성공적인 우정관계일수록 행동교류의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친밀성이 높은 행동을 교류함을 알 수 있다.

세 시점의 경과에 따라서 행동 발생율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Cochran의 T(Conover, 1971)로 검증한 결과, 진전집단에서는 도와주다, 놀다, 보호하다, 보살피다, 오해하다, 신경질부리다, 충고하다, 화내다, 돌보다, 싸우다, 다투다, 전화하다, 까불다, 기뻐하다, 칭찬하나다의 15개 행동이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비진전 집단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아부하다, 도망가다, 질투하다, 미워하다, 싫어하다, 욕하다, 칭찬하다, 보호하다 등의 8개 행동의 발생백분율이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질문하다, 악수하다, 친해지다, 가르치다 등의 4개 행동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두 집단에서 유의하게 증가되거나 감소된 행동들의 의미를 찾아보면 몇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진전집단에서는 긍정적 행동뿐만 아니라 부정적 행동도 증가했다. 그런데 부정적 행동들은 성질상 부정적이긴 하지만 양자관계에서 표현됐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반작용을 덜 수반하는 행동들이다. 이와 반면에 비진전 집단에서는 우정관계를 해치거나 저해할 수 있는 극히 심한 부정적 행동이거나 양면적 감정을 내포하는 행동들이 주로 증가되었으며, 또한 소수이기는 하지만 친밀한 우정관계의 촉진이나 지속과 관련된 행동들이 감소했다. 부정적 행동이더라도 우정관계의 진전여부에 따라 성질이 다른 행동이 나타나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2) 자기노출 세 시점에 걸쳐서 진전여부 별로 얻은 자기노출 측정치들의 평균은 표 4에서, 그리고 이 자료를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5에서 볼 수 있다.

(1) 자기노출 내용의 다양성 : 진전집단에서는 비진전집단에 비해서 더 많은 화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F_{1,75}=9.61, p < .01$). 시점별로는 진전집단에서는 비진전집단보다 사귀지 8주 ($F_{1,75}=10.17, p < .01$)와 13주 ($F_{1,75}=8.55, p < .01$)에서 대화를 나누는 화제항목이 더 많았다. 또한 전체적으로 친교기간의 경과에 따라서도 대화한 화제항목은 더 많았다 ($F_{2,150}=5.54, p < .01; F_{lin 1,75}=10.83, p < .01$). 세 시점간에는, 사귀지 3주와 8주 사이에서만 화제항목의 수가 증가했다 (1시점 대 2시점, $t=2.09, df=76, p < .05$; 1시점 대 3시점, $t=3.31, df=76, p < .01$). 한편 진전여부×시점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못했으나, 진전집단에서만은 세 시점에 따라서 대화내용의 다양성이 달랐다 ($F_{2,90}=7.20, p < .01$). 이 결과로부터 전반적으로 화제항목수로 본 언어적 교류의 폭은 우정형성의 초기단계에서 넓어지지만, 진전집단에서는 비진전집단에 비해서 사귀지 8주 후에야 이 현상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2) 최고 자기노출 수준 : 대화한 화제항목 중 가장 친밀한 항목의 친밀도 수준을 분석한 결과, 친교기간이 경과할 수록 더 친밀한 내용의 대화를 했다 ($F_{2,150}=3.94, p < .05; F_{lin 1,75}=5.36, p < .05$). 세 시점간에는, 2시점 이후에야 대화의 최고 자기노출 수준이 높아졌다 (1시점 대 3시점, $t=2.33, df=76, p < .05$; 2시점 대 3시점, $t=2.87, df=76, p < .05$). 이는 친교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언어적 교류가 깊어지지만, 대인행동의 양적 교류와는 달리 적어도 친구로 사귀지 8주가 지난 후에야 친밀도가 달라진 내용의 대화가 교류됨을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한편, 진전여부×시점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못했으나, 진전집단에서만은 세 친교시점에 따라서 대화내용의 가장 친밀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F_{2,90}=3.23, p < .05$).

표 4. 자기노출 측정치의 조건별 평균

측정치 시점	자기노출 내용의 다양성				최 고 노 출				노 출 범 위			
	1	2	3	전체	1	2	3	전체	1	2	3	전체
진전여부												
진 전	7.93 (5.40)	9.96 (5.06)	11.32 (6.71)	9.70 (5.92)	5.33 (.79)	5.38 (.79)	5.62 (.55)	5.44 (.73)	2.68 (.88)	2.64 (.98)	2.94 (.83)	2.75 (.91)
비 전	6.35 (4.45)	6.39 (4.26)	7.29 (3.73)	6.68 (4.18)	5.37 (.67)	5.16 (.93)	5.47 (.64)	5.33 (.77)	2.40 (.98)	2.27 (1.07)	2.65 (.81)	2.44 (.97)
전 체	7.30 (5.10)	8.52 (5.06)	9.64 (6.02)	8.48 (5.50)	5.35 (.74)	5.29 (.85)	5.56 (.59)	5.40 (.75)	2.57 (.93)	2.49 (1.04)	2.83 (.83)	2.63 (.95)

측정치 시점	평 균 노 출				최 고 요 망 도			
	1	2	3	전체	1	2	3	전체
진전여부								
진 전	4.04 (.60)	4.21 (.62)	4.37 (.53)	4.21 (.60)	5.85 (.62)	6.07 (.49)	6.20 (.53)	6.04 (.57)
비 전	4.23 (.71)	4.21 (.73)	4.31 (.48)	4.25 (.66)	5.98 (.47)	5.88 (.66)	6.02 (.44)	5.96 (.53)
전 체	4.11 (.66)	4.21 (.67)	4.35 (.51)	4.22 (.62)	5.90 (.57)	5.99 (.57)	6.12 (.50)	6.01 (.56)

표 5. 자기노출 측정치의 변량분석 결과

	자기노출 내용의 다양성			최 고 노 출			노 출 범 위		
	F	df	유의수준	F	df	유의수준	F	df	유의수준
진전여부	9.60 (32.92)	1,75	$p < .01$.69 (.92)	1,75	n.s.	3.89 (1.39)	1,75	n.s.
시 점	5.54 (14.87)	2,150	$p < .01$	3.94 (.37)	2,150	$p < .05$	3.77 (.62)	2,150	$p < .05$
진전×시점 상호작용	1.99	2,150	n.s.	.97	2,150	n.s.	.08	2,150	n.s.

	평 균 노 출			최 고 요 망 도		
	F	df	유의수준	F	df	유의수준
진전여부	.13 (.74)	1,75	n.s.	.75 (.47)	1,75	n.s.
시 점	3.89 (.21)	2,150	$p < .05$	3.28 (.22)	2,150	$p < .05$
진전×시점 상호작용	1.43	2,150	n.s.	2.79	2,150	n.s.

주 : 괄호안의 숫자는 MSe임.

(3) 평균노출 : 최고 자기노출이 일시적인 지표일수도 있으므로 대화를 나눈 화제항목들의 친밀도 수준으로부터 평균치를 구했다. 전체적으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더 친밀한 수준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F_{2,150}=3.89, p < .05$; $F_{lin, 1,75}=9.63, p < .01$). 세 시점 간에는, 2시점 이후에야 평균적으로 더 친밀한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1시점 대 3시점, $t=3.12, df=76, p < .01$; 2시점 대 3시점, $t=2.23, df=76, p < .05$). 이 결과는 2시점 이후에 최고 자기노출 수준이 높아지는 현상이 일시적이고 우발적 자기노출에 기인된 결과가 아님을 의미한다. 한편, 진전여부×시점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진전집단에서만 세 시점에 따라서 평균노출 수준이 유의하게 달랐다 ($F_{2,90}=7.25, p < .01$).

(4) 자기노출 내용의 친밀도 범위 : 세 친교시점의 경과에 따라서 노출한 화제의 친밀도 수준이 다양해졌다 ($F_{2,150}=3.77, p < .05$; $F_{lin, 1,75}=4.23, p < .05$). 세 시점 간에는, 2시점 이후에야 대화내용의 친밀도 범위가 유의하게 더 커졌다(1시점 대 3시점, $t=2.07, df=76, p < .01$; 2시점 대 3시점, $t=2.67, df=76, p < .05$). 이 결과는 2시점 이후에 화제의 최고 자기노출 수준이 높아지는 현상과 공변하는데 기인한다고 본다.

(5) 자기노출의 최고요망도 : 친구와 대화한 화제항목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화의 요망도를 분석한 결과, 세 친교시점의 경과에 따라서 더 바람직한 내용의 대화를 교류했다 ($F_{2,150}=3.28, p < .05$; $F_{lin, 1,75}=8.90, p < .01$). 세 시점 간에는, 1시점에 비해서 3시점에서만 대화의 최고 요망도수준이 높았다 ($t=3.00, df=76, p < .01$). 한편, 진전여부×시점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못했으나, 진전집단에서만 세 시점에 따라서 대화내용의 최고 요망도 수준이 유의하게 달랐다 ($F_{2,90}=5.85, p < .05$).

3) 매력 네 수준으로 평정한 대인매력의 평균치는 표 6에, 그리고 변량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로부터 다음의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① 우정관계가 진전된 사람들은 진전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방을 더 매력적이라고 보았다 ($F_{1,78}=10.05, p < .01$).

② 세 시점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매력이 유의하게 낮아졌다 ($F_{2,156}=9.61, p < .01$; $F_{lin, 1,78}=11.20, p < .01$). 진전집단과 비진전집단을 별도로 나누어서 세 시점에 따른 매력의 변화를 보면, 비진전집단에서만 세 시점에 따라서 매력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F_{2,64}=7.88, p < .01$).

③ 동일 대상인물에 대한 매력도지만 매력을 피상적 수준부터 깊은 대인교류 수준의 매력까지 네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 가장 피상적인 수준에서의 매력 평가치는 가장 높고 가장 친밀한 제 4 수준에서의 매력까지 점차

표 6 대인매력의 조건별 평균

시점 진전여부 매력수준	1 시 점			2 시 점			3 시 점			전체
	진 전 (47)	비진전 (33)	전 체 (80)	진 전 (47)	비진전 (33)	전 체 (80)	진 전 (47)	비진전 (33)	전 체 (80)	
1 수준	14.19 (2.44)	13.64 (2.46)	13.96 (2.46)	13.55 (1.98)	12.45 (2.32)	13.10 (2.25)	13.47 (2.10)	11.49 (2.61)	12.65 (2.52)	13.24 (2.41)
2 수준	13.19 (2.92)	11.85 (2.22)	12.64 (2.73)	12.45 (2.42)	11.55 (2.46)	12.08 (2.48)	12.51 (2.11)	11.12 (2.67)	11.94 (2.48)	12.22 (2.57)
3 수준	13.09 (2.66)	11.52 (2.40)	12.44 (2.67)	12.49 (2.47)	11.09 (2.48)	11.91 (2.64)	11.79 (2.45)	10.09 (2.98)	11.09 (2.84)	11.81 (2.72)
4 수준	12.45 (2.67)	11.18 (2.68)	11.93 (2.75)	12.13 (2.72)	11.12 (2.37)	11.71 (3.05)	12.38 (2.37)	10.15 (3.12)	11.46 (2.92)	11.70 (2.91)
전 체	13.22 (2.68)	12.05 (2.45)	12.74 (2.65)	12.66 (2.41)	11.55 (2.41)	12. 2 (2.62)	12.54 (2.26)	10.71 (2.85)	11.79 (2.70)	12.44 (2.66)

표 7 대인매력의 변량분석 결과

변 량 원	자승화	자유도	자승평균	F
피험자 간				
진전여부 (A)	436.577	1	436.577	10.05**
집단내 오차 (a)	3,387.689	78	43.432	
피험자 내				
시점 (B)	147.140	2	73.570	9.61**
A × B	24.369	2	12.185	1.59
B × 집단내 오차 (b)	1,193.658	156	7.652	
매 력 (C)	352.775	3	117.592	40.33**
A × C	5.898	3	1.966	.67
C × 집단내 오차 (C)	682.328	234	2.916	
B × C	28.719	6	4.786	3.56**
A × B × C	15.624	6	2.604	1.94
B × C × 집단내 오차 (b × c)	629.157	468	1.344	
전 체	6,903.933	959		

** $p < .01$

로 득점이 낮았다 ($F_{3,234}=40.33, p < .01$).

④ 1시점에서는 네 친밀도 수준별 매력 측정치에서 차이가 현저했으나 (최고 득점 - 최하득점, 2.03), 3시점에서는 네 매력 측정치간의 차이가 1시점에 비해 작아지는 시점×매력수준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4) 관계지각 세 시점에 걸쳐서 진전여부별로 형평, 장래의 관계예견, 만족, 상대방의 자신에 대한 호감, 장차 도움을 주거나 받을 정

표 8 관계지각 측정치의 조건별 평균

측정치 시점 진전여부	형 평				장래의 관계예견				만 족			
	1	2	3	전체	1	2	3	전체	1	2	3	전체
진 전	5.06 (1.21)	5.23 (.78)	5.32 (.92)	5.21 (.99)	6.49 (1.20)	6.02 (1.10)	6.21 (1.20)	6.24 (1.18)	5.98 (1.21)	6.20 (1.16)	6.09 (1.08)	6.09 (1.14)
비진전	5.48 (1.18)	4.88 (1.20)	5.15 (1.13)	5.17 (1.20)	5.91 (1.56)	5.67 (1.17)	5.36 (1.04)	5.65 (1.30)	5.82 (1.27)	5.61 (1.07)	5.15 (.93)	5.53 (1.13)
전 체	5.24 (1.22)	5.09 (.99)	5.25 (1.02)	5.19 (1.08)	6.25 (1.39)	5.88 (1.44)	5.86 (1.21)	6.00 (1.27)	5.91 (1.23)	5.95 (1.14)	5.70 (1.12)	5.85 (1.17)

측정치 시점 진전여부	호 감 지 각				도 움 기 대				도 움 의 도			
	1	2	3	전체	1	2	3	전체	1	2	3	전체
진 전	5.74 (.92)	5.85 (1.04)	6.07 (1.09)	5.88 (1.03)	6.13 (1.40)	5.94 (1.26)	5.91 (1.15)	6.00 (1.27)	5.96 (1.38)	5.74 (1.10)	5.74 (.93)	5.82 (1.16)
비진전	5.91 (1.16)	5.58 (1.02)	5.15 (.72)	5.56 (1.03)	6.03 (1.24)	5.45 (1.26)	4.85 (1.46)	5.44 (1.41)	5.73 (1.35)	5.45 (1.10)	5.03 (1.47)	5.40 (1.35)
전 체	5.81 (1.03)	5.73 (1.04)	5.70 (1.05)	5.75 (1.04)	6.09 (1.33)	5.74 (1.28)	5.48 (1.39)	5.77 (1.36)	5.86 (1.38)	5.62 (1.11)	5.45 (1.23)	5.65 (1.26)

측정치 시점 진전여부	성 격 유 사 성			
	1	2	3	전체
진 전	6.30 (1.69)	6.22 (1.73)	5.83 (1.93)	6.12 (1.80)
비진전	5.58 (1.79)	5.42 (1.58)	4.71 (1.71)	5.24 (1.74)
전 체	6.01 (1.77)	5.90 (1.72)	5.38 (1.92)	5.76 (1.83)

도 및 성격유사성 측정치의 평균은 표 8에서, 그리고 변량분석 결과는 표 9에서 제시되어 있다.

표 9 관계지각 측정치의 변량분석 결과

	형 평			상래의 관계 예견			만 족		
	F	df	유의수준	F	df	유의수준	F	df	유의수준
진전여부	.34 (1.96)	1,78	n.s.	7.98 (2.58)	1,78	$p < .01$	7.88 (2.31)	1,78	$p < .01$
시 점	1.36 (.77)	2,156	n.s.	3.93 (.98)	2,156	$p < .05$	2.60 (.77)	2,154	$p < .05$
진전×시점 상호작용	4.12	2,156	$p < .05$	1.21	2,156	n.s.	3.74	2,154	n.s.

	호 감 지 각			도 움 기 대			도 움 의 도		
	F	df	유의수준	F	df	유의수준	F	df	유의수준
진전여부	3.63 (1.71)	1,77	n.s.	5.40 (3.24)	1,78	$p < .05$	4.21 (2.34)	1,78	$p < .05$
시 점	1.11 (.70)	2,154	n.s.	9.95 (.95)	2,156	$p < .001$	3.54 (1.14)	2,156	$p < .05$
진전×시점 상호작용	7.71	2,154	$p < .001$	4.86	2,156	$p < .05$	1.19	2,156	n.s.

성 격 유 사 성

	F	df	유의수준
진전여부	7.67 (5.60)	1,75	$p < .01$
시 점	4.98 (1.92)	2,150	$p < .01$
진전×시점 상호작용	.42	2,150	n.s.

주 : 괄호안의 숫자는 M S e 임.

(1)형평 :진전여부나 시점에 따라서는 형평수준 지각에 차이가 없었으나, 진전집단과는 달리 ($F < 1$) 비진전집단에서는 세 시점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F_{2,64}=3.74, p < .05$), 1시점 ($\bar{X}=5.48$)에 비해서 2시점 ($\bar{X}=4.88$)에서 과소불형평 지각이 더 큰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F_{2,156}=4.12, p < .05$). 이 결과는 상대방 보다 자신이 과소지급 됐다고 보는 불형평 지각이 초기 8주 사이에 우정관계의 비진전과 관련된 요인임을 의미한다.

(2)장래의 관계예견 :비진전집단에서는 진전집단에 비해서 장차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나쁘리라고 예견했다 ($F_{1,78}=7.98, p < .01$). 세 시점별로는, 3시점에서야 비진전집단에서 진전집단에 비해서 장차의 관계를 나쁘게 예견했다 ($F_{1,78}=10.53, p < .01$). 이는 초기 교류단계에서는 장래예견의 단서가 적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관계가 지속된 후에야 예견이 가능한데 기인된 결과라고 본다. 또한, 전체적으로 상대방과의 장차의 관계에 대한 예견은 세 시점이 경과할수록 더 나빠졌다 ($F_{2,156}=3.93, p < .05; F_{1,78}=4.62, p < .05$). 그러나, 2시점이 경과한 후에는 관계예견이 더 나빠지지 않았다 (1시점 대 2시점, $t=2.83, df=79, p < .01$; 1시점 대 3시점, $t=2.16, df=79, p < .05$). 이 결과로부터 사권지 8주경에는 그 이전보다 상대방과의 앞으로의 관계를 나쁘리라고 예견하는 전반적 경향이 나타나고, 그 후로는 비진전집단에서 진전집단보다 앞으로의 관계를 더 비관적으로 예견했음을 알 수 있다.

(3)만족 :비진전집단에서는 진전집단에 비해서 상대방과의 우정관계에 대해 덜 만족하였다 ($F_{1,77}=7.88, p < .01$). 한편, 진전집단에서와는 달리 ($F < 1$) 비진전집단에서는 세 시점에 따라서 우정관계에 대한 만족이 낮아진 ($F_{2,64}=3.73, p < .05$) 진전여부×시점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_{2,154}=3.74, p < .05$). 진전집단보다 비진전집단에서 우정관계에 덜 만족한 현상은 2시점 ($F_{1,77}=5.41, p < .05$)과 3시점 ($F_{1,77}=15.81, p < .001$)에서 발견됐다. 이 결과로부터 우정이 진전된 경우와는 달리 진전되지 못한 관계에서는 친교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불만족이 심화되며, 사권지 8주부터는 진전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낮은 만족수준을 경험함을 알 수 있다.

(4)상대방의 자신에 대한 호감 판단 :진전여부나 시점에 따라서는 호감지각 수준에 차이가 없었으나, 우정관계가 진전되지 못한 사람들은 세 시점에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을 덜 좋아한다고 지각했으며 ($F_{2,64}=5.13, p < .01$), 1, 2시점과는 달리 3시점에 이르러서 우정관계가 계속 진전된 사람들보다 호감지각 수준이 낮아서 ($F_{1,77}=16.10, p < .001$) 진전여부×시점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F_{2,154}=7.71, p < .01$).

(5)장차 도움을 받으리라는 기대와 도와줄 의도 :비진전집단에서는 진전집단에 비해서 1년 후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덜 기대했다 ($F_{1,78}=5.40, p < .05$).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 친교기간이 경과할수록 상대방로부터 도움을 덜 기대했다 ($F_{2,156}=9.95, p < .001; F_{1in, 1,78}=11.65, p < .01$). 그러나 사권지 8주 이후에는 상대방으로부터의 도움기대 수준이 더 낮아지지 않았다 (1시점 대 2시점, $t = -2.60, df=79, p < .05$; 1시점 대 3시점, $t = 3.43, df=79, p < .01$). 한편, 진전집단과는 달리 ($F < 1$) 비진전집단에서는 세 시점에 따라서 상대방부터 도움을 덜 기대했으며 ($F_{2,64}=8.55, p < .01$), 3시점에 이르러서는 진전집단 보다 상대방으로부터의 도움기대 수준이 낮아서 ($F_{1,78}=13.04, p < .001$) 진전여부×시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F_{2,156}=4.86, p < .05$).

상대방을 도와줄 의도를 분석한 결과, 비진전집단에서는 진전집단보다 1년 후 자신이 상대방에게 도움을 더 적게 줄 것으로 보았다 ($F_{1,78}=4.21, p < .05$). 세 시점별로는, 3시점에 이르러서 비진전 집단에서는 진전집단에 비해서 상대방을 도와줄 의도가 낮았다 ($F_{1,78}=6.90, p < .05$). 또한, 전체적으로 세 친교시점의 경과에 따라서도 상대방을 도와줄 의도가 낮았다 ($F_{2,156}=3.54, p < .05; F_{1in, 1,78}=5.99, p < .05$). 세 시점간에는, 1시점에 비해서 3시점에서 상대방을 도와줄 의도가 낮았다 ($t = 2.46, df=79, p < .05$). 이상의 결과로부터 상대방을 도와줄 의도는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하는 수준과 공변하며, 비진전과 관련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6) 이상적 친구와 동료와의 성격 유사성 : 자신의 이상적 친구상과 상대방과의 성격 유사성 지표는 비교대안의 하나인 자기기준에서의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했다.

비진전집단에서는 진전집단에 비해서 상대방의 성격을 자신의 이상적 친구상과 덜 유사하게 지각했다 ($F_{1,75}=7.67, p < .01$). 세 시점별로는 2시점 ($F_{1,75}=4.11, p < .05$) 과 3시점 ($F_{1,75}=6.63, p < .05$)에서 비진전집단에서는 진전집단보다 상대방을 자신의 이상적 친구상의 성격과 덜 유사하게 보았다. 또한 친교기간의 경과에 따라서도 성격 유사성의 정도가 낮아졌다 ($F_{2,150}=4.98, p < .01; F_{1in, 1,75}=8.67, p < .01$). 세 시점간에는, 2시점 이후에 상대방의 성격을 이상적 친구상과 유사하게 보는 정도가 낮아졌다 (1시점 대 3시점, $t = -2.96, df=76, p < .01$; 2시점 대 3시점, $t = 2.23, df=76, p < .05$). 한편, 진전여부×시점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못했으나, 비진전집단에서만은 세 시점 경과에 따라서 성격유사성 수준이 낮아졌다 ($F_{2,60}=3.36, p < .05$).

(7) 귀인 : 상대방과 계속 친하게 지내거나 친하지 않게 된 원인들 가운데 발생순위가 높은 6개 귀인요인별 백분율을 표 10에 제시하였다. 첫 조사시점에서는 두 집단 모두 가장 좋아하는 친구를 선택했으므로, 두 집단을 합쳐서 발생순위가 높은 6개의 친하게 된 원인만을 제시했다. 우정관계의 진전여부와 관련된 주요 귀인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표 10 친하거나 친하게 지내지 않게 된 원인들

귀인내용들	1 시 점		2 시 점		3 시 점		2+3시점	
	진전+비 진전 (80)	진전 (44)	비진전 (17)	진전 (47)	비진전 (32)	진전 (91)	비진전 (49)	
· 지내다보니 친하게 됨 (지내다 보니 덜 친하게 됨)	60.00	61.36	58.82	57.45	56.25	59.34	57.14	
· 사귀는데 부담이 적어서 (사귀는데 부담이 많아서)	51.25	56.82	(5.88)	53.19	(21.88)	54.95	(16.33)	
· 자주 만나다 보니 친하게 됨 (만날 기회가 적어서 덜 친해짐)	51.25	50.00	52.94	44.68	37.50	47.25	42.86	
· 상대의 성격이 성실하고 착해서 (불성실하고 악해서)	46.25	47.73	(0.00)	46.81	(0.00)	47.25	(0.00)	
· 서로 협조가 잘 되서 (싸우거나 자주 다투어서)	36.25	52.27	(5.88)	63.83	(0.00)	58.24	(2.04)	
· 나에게 잘 대해줘서 (잘 대해주지 않아서)	35.00	52.27	(0.00)	46.81	(12.50)	49.45	(8.16)	
· 이해관계에 서로 도움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	(30.00)	(31.82)	(11.76)	(34.04)	28.13	(32.97)	(2.45)	
· 친하게 지내기 위해 내가 노력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	(20.00)	(2.27)	47.06	(10.64)	37.50	(6.59)	40.82	
· 생각하는 바가 서로 같아서 (생각하는 바가 서로 틀려서)	(8.75)	(25.00)	29.41	(21.28)	37.50	(23.08)	34.69	
· 더 좋은 친구가 없어서 (더 좋은 친구가 생겨서)	(7.50)	(11.36)	17.65	(17.02)	37.50	(14.29)	30.61	
· 서로 잘 이해해서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28.75)	(38.64)	(11.76)	48.94	(21.88)	(43.96)	(18.37)	
· 기분이 서로 잘 통해서 (기분이 서로 잘 안통해서)	(35.00)	(36.36)	17.65	46.81	(21.88)	(41.76)	(20.41)	
· 내가 계속 관심을 보여서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10.00)	(15.91)	29.41	(10.64)	(25.00)	(13.19)	26.53	

주 : 상위순위의 6개 항목을 대비

① 계속 친하게 된 원인들 가운데 발생순위가 높은 6개 귀인요인은 세 시점에 걸쳐서 동일하였다. 구체적으로, 친하게 지내게 된 원인들로서는 지내다 보니 또는 자주 만나다 보니 등의 상황적이거나 우발적 원인에 귀인시키거나 사귀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점, 상대방의 좋은 대우, 상대방의 좋은 성격 및 서로의 협조 등에 귀인시켰다.

② 2시점과 3시점을 합쳤을 때, 계속 친하지 않게 된 원인으로 순위가 높은 6개 귀인요인들은 지내다 보니 또는 만날 기회가 적어서 등의 우발적 요

인과 자신의 노력부족, 자신의 관심부족, 서로의 생각상충, 더 좋은 친구가 생김 등이었다. 2시점과 3시점을 나누어서 보면, 사건지 13주 후인 3시점에서 자신의 관심부족 대신에 상호간에 이해상충을 주된 원인으로 지적한 점만 달랐다.

③ 이상의 결과로부터, 우정관계의 진전여부에 대한 귀인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두 집단 모두 친하거나 친하지 않게 된 공통적 원인으로 만나는 기회의 다소와 지내다 보니 친하거나 친하지 않게 됨 등을 들어서 상황적 요인이 강했고 초기결정에서의 의도적 교류보다 비의도적 요인이 많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우정관계를 지속한 사람들은 우정의 지속 원인을 자신보다는 상대방에게 귀인시키거나 두 사람 모두에게 공동귀인시키지만, 우정관계가 계속 지속되지 못한 사람들은 진전되지 못한 원인이 자신때문이라고 귀인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시점내 및 시점간 중다예언 일정 시점에서 측정된 우정관계의 여러 단면들에 의해서 다음 시점에서의 어떤 단면을 예언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일정 시점에서의 우정관계의 어떤 단면이 동일 시점에서의 그밖의 다른 단면들에 의해서 예언될 수 있는지를 함께 분석한다. 시점간 중다예언분석과 시점내에서의 중다예언분석을 통해 단면들의 상호관련성과 인과성에 관한 추론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시점간 중다예언분석과 시점내에서의 중다예언분석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는 누가 중다상관계수 CR, 누가 CR², 그리고 유의한 F비가 제시된다. 중다예언분석이 유의하였을 때는 전향적 단계별 중다분석(forwar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했는데, 이때 준거변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함께 제시했다. 중다예언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① 1시점→2시점 중다예언분석 결과를 보면, 매력을 제외한 2시점의 전체 행동, 평균노출, 형평, 관계예견, 만족, 호감지각 및 도움기대가 각각 1시점의 14개 예언요인에 의해 유의하게 예언되었다. 단계별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1시점의 예언요인 가운데 2시점의 준거변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매력, 긍정적 행동, 최고노출, 도움의도, 만족, 관계예견 및 도움기대 등 7개였다. 이 가운데 관계예견($t=3.12, df=63, p < .01$), 도움기대($t=4.16, df=63, p < .01$) 및 만족($t=2.23, df=63, p < .05$)은 2시점의 형평수준을 유의하게 예언하는 요인들로서, 양자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경험하거나 앞으로의 관계에서 기대하는 내용들이다. 형평수준 지각은 관계에 대한 평가나 예견에 토대를 두기 때문에, 이 요인들이 2시점의 형평수준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 요인들을 제외하면, 매력, 긍정적 행동, 최고노출 및 도움의도 등의 요인은 대체로 상대방과의 피상적 접촉에 토대를 두는 요인들임을 알 수 있다. 특히 1시점의 매력은 2시점의 관계예견, 만족, 호감지각 및 도움기대를 유의하게 예언하는 요인이었다.

2시점→3시점 중다예언분석 결과, 형평을 제외한 3시점의 모든 준거변인이 2시점의 14개 예언요인에 의해 각각 유의하게 예언되었다. 단계별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3시점의 준거변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2시점의 예언 요인들은 만족, 성격 유사성, 긍정행동, 최고노출, 도움기대, 형평, 매력, 및 관계예견 등 8개였다. 이 가운데에는 1시점→2시점 중다예언분석에서 준거변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들 뿐만 아니라 만족, 성격유사성, 도움기대, 형평, 관계예견과 같이 대체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경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2시점의 만족은 3시점의 매력, 관계예견, 호감지각 및 도움기대를 유의하게 예언하는 요인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친교시점에 따라서 우정관계 단면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② 2시점과 3시점에서의 전체행동 수준은 이전 시점의 예언요인들에 의해서 각각 유의하게 예언되었는데, 중다상관계수는 각각 $R = .649$ 와 $R = .829$ 이다. 단계별 분석 결과, 1시점 ($t = 6.08, df = 65, p < .01$) 과 2시점 ($t = 9.20, df = 65, p < .01$) 의 긍정적행동이 각각 다음 시점에서의 전체행동 수준을 유의하게 예언하는 요인이었다. 한편, 시점내에서의 중다예언분석 결과를 보면, 동일 시점에서의 전체행동을 예언한 중다상관계수는 세 시점에서 각각 $R_1 = .958, R_2 = .979, R_3 = .994$ 로서 모두 유의하였다. 단계별 분석 결과, 세 시점 각각에서 전체행동은 긍정행동과 부정행동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유의하게 예언되었다. 그런데, 세 시점 각각에서 행동 측정치들에 의해서 유의하게 예언되는 단면들을 보면, 1시점에서는 매력이 긍정적 행동 ($t = 4.94, df = 62, p < .01$) 과 부정적 행동 ($t = 2.87, df = 62, p < .01$) 에 의해서 유의하게 예언되었고, 만족이 부정적 행동 ($t = 2.94, df = 62, p < .01$) 에 의해 유의하게 예언되었다. 또한 2시점에서는 관계예견이 부정적 행동 ($t = 2.33, df = 63, p < .05$) 에 의해서 유의하게 예언되는 요인이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전체행동 수준은 다른 행동 측정치들에 의해서만 예언됨을 알 수 있다. 이는 행동수준이 우정관계의 다른 단면들의 후행결과라기 보다는 선행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③ 2시점과 3시점의 평균노출 수준 역시 이전 시점에서의 예언요인들에 의해서 각각 유의하게 예언되었으며, 중다상관계수는 $R = .613$ 과 $R = .672$ 였다. 단계별 분석 결과, 1시점에서는 도움의도 ($t = 2.76, df = 64, p < .01$) 와 최고노출 ($t = 2.42, df = 64, p < .05$) 이 2시점의 평균노출 수준을 유의하게 예언

표 11 시점내 및 시점간 중다예언분석 결과

준거변인	통계치	중다분석구분		시점간중다예언	
		1	→ 2	2	→ 3
매력총점	CR(CR ²)	.576(.332)		.799(.639)	
	F _{14,52}	n.s.		6.57**	
	단계별 분석 CR(CR ²)			만족 .729(.532)** 성격유사성 .751(.565)*	
전체행동	CR(CR ²)	.649(.421)		.829(.688)	
	F _{14,52}	2.705**		8.174**	
	단계별 분석 CR(CR ²)	긍정행동 .600(.359)**		긍정행동 .752(.566)**	
평균노출	CR(CR ²)	.613(.376)		.672(.452)	
	F _{14,52}	2.234*		3.065**	
	단계별 분석 CR(CR ²)	도움줄의도 .358(.128)** 최고노출 .446(.199)*		최고노출 .523(.274)**	
형평	CR(CR ²)	.602(.362)		.400(.160)	
	F _{14,52}	2.11**		n.s.	
	단계별 분석 CR(CR ²)	미래예견 .258(.067)** 도움기대 .466(.217)** 만족 .524(.274)*			
관계예견	CR(CR ²)	.588(.746)		.745(.556)	
	F _{14,52}	1.97*		4.64**	
	단계별 분석 CR(CR ²)	매력 .408(.167)**		만족 .657(.432)**	
만족	CR(CR ²)	.713(.509)		.677(.458)	
	F _{14,52}	3.85**		3.14**	
	단계별 분석 CR(CR ²)	매력 .622(.387)**		도움받을기대 .580(.336)** 성격유사성 .617(.381)** 형평 .635(.404)*	
호감지각	CR(CR ²)	.621(.385)		.639(.409)	
	F _{14,52}	2.33*		2.57	
	단계별 분석 CR(CR ²)	매력 .474(.225)**		만족 .548(.300)**	
도움받을기대	CR(CR ²)	.612(.375)		.775(.601)	
	F _{14,52}	2.23**		5.60**	
	단계별 분석 CR(CR ²)	매력 .472(.223)*		만족 .663(.439)** 매력 .692(.479)** 미래예언 .729(.531)*	

* p < .05

** p < .01

하는 요인이었으며, 2시점에서는 최고노출($t=4.71, df=65, p<.01$)이 3시점의 평균노출 수준을 유의하게 예언하는 요인이었다. 한편, 시점내에서의 중다예언분석 결과를 보면, 세 시점에서 각각 평균노출수준이 유의하게 예언되었다($R_1=.831, R_2=.874, R_3=.823$). 단계별 분석 결과, 세 시점 각각에서 평균노출수준은 최고노출과 평균요망도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유의하게 예언되었다. 그런데, 세 시점 각각에서 노출 측정치들에 의해서 유의하게 예언된 단면을 보면, 2시점에서 매력이 평균노출($t=2.60, df=63, p<.05$)에 의해서, 그리고 도움기대가 대화내용의 다양성($t=2.04, df=64, p<.05$)에 의해 유의하게 예언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평균노출 수준은 다른 노출 측정치에 의해서만 예언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노출수준이 다른 단면의 선행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④ 시점간 중다예언분석 결과로부터, 만족과 형평 간에는 다음의 관계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 1시점의 만족은 2시점의 형평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t=2.23, df=63, p<.05$). 한편, 2시점의 형평은 3시점의 만족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t=2.15, df=63, p<.05$). 이 결과로부터, 사권지 3개월간의 친교기간 동안에는 만족이 다음 시점의 형평수준을 결정하며, 이 형평수준은 다시 다음 시점의 만족수준을 결정해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족과 형평은 세 친교시점에 걸쳐서 상호 인과적으로 영향을 줌을 시사받을 수 있다.

⑤ 매력과 만족 사이에는 다음의 흥미있는 관계가 발견된다. 시점간 중다예언분석 결과를 보면, 1시점의 매력이 2시점의 만족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반면($t=2.79, df=62, p<.01$), 2시점의 만족은 3시점의 매력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t=5.56, df=63, p<.01$). 한편 시점내에서의 중다예언분석 결과를 보면, 1시점에서는 매력이 만족수준을 유의하게 예언하는 요인인 반면($t=6.41, df=65, p<.01$), 2시점에서는 만족이 매력수준을 유의하게 예언하였다($t=5.56, df=63, p<.01$). 3시점에서는 매력과 만족이 서로 유의하게 예언을 하며, 각각의 전체변량의 55.7%를 설명한다. 이 결과로부터, 초기매력이 만족수준을 결정짓고 이어서 이 만족수준이 다음 시점의 매력을 결정짓는 식으로 두 단면이 인과적으로 관련되어서, 결국에는 두 단면이 공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친교시점의 경과에 따른 두 단면의 시계열적 상호인과성과 공변성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⑥ 매력을 준거변인으로 삼았을 때, 세 시점내에서 14개 예언요인에 의해서 매력을 예언한 중다상관계수는 세 시점 각각 $R_1=.793, R_2=.863, R_3=.858$ 로 모두 유의하였으며, 매력의 전체변량 가운데 62.8%, 74.5%, 73.6%를 설명해준다. 단계별 분석 결과, 1시점에서는 긍정적 행동($t=4.94, df=62,$

$p < .01$), 도움기대 ($t=5.58, df=62, p < .01$). 성격유사성($t=2.67, df=62, p < .01$) 및 부정적 행동($t=3.87, df=62, p < .01$)이 매력을 유의하게 예언한 요인이었고, 2시점에서는 만족($t=5.56, df=63, p < .01$), 도움기대($t=4.26, df=63, p < .01$) 및 평균노출($t=2.60, df=63, p < .05$)이, 그리고 3시점에서는 만족($t=4.49, df=63, p < .01$), 관계예견($t=3.38, df=63, p < .01$) 및 성격유사성($t=2.09, df=63, p < .05$)이 매력을 유의하게 예언한 요인이었다. 이 가운데 관계에 대한 평가나 예견에 토대를 두는 내용들만 보면, 1시점에서는 전체변량의 10.6%를 설명하고 2시점과 3시점에서는 각각 65%와 64.7%를 설명한다. 이 결과는 사권지 8주 이후에는 관계지각과 관련된 요인이 매력의 결정요인으로 상대적으로 중요해짐을 나타낸다.

⑦ 1시점과 2시점의 매력은 각각 같은 시점의 도움기대 수준과 서로 유의하게 예언하는 요인이었다. 한편, 1시점의 매력은 2시점의 도움기대 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2시점의 매력은 3시점의 도움기대 수준을 결정짓는 요인이었다. 3시점에서는 이 도움기대 수준에 의해서 매력수준이 유의하게 예언되었다. 따라서 매력과 도움기대는 세 친교시점에서 각각 상호관련성을 갖는 단면들이며, 시계열적으로는 매력이 도움기대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⑧ 만족은 세 시점내에서 각각 관계예견이나 호감지각 수준과 서로 관련되었다. 또한 2시점의 만족은 3시점의 관계예견이나 호감지각 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이었다. 이 결과로부터, 만족은 관계예견이나 호감지각과 상호관련성을 갖지만, 사권지 8주 이후에는 만족이 호감지각이나 관계예견을 결정함을 알 수 있다.

논 의

진전여부와 친교시점에 따른 단면별 변화 1) 행동의 변화 (1) 전체행동:우정관계가 진전된 사람들은 진전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첫 조사시점인 3주부터 더 활발한 행동교류를 하였다. 전체적으로 친교기간의 경과에 따라서도 행동교류의 폭이 넓어졌지만, 사권지 8주와 13주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서 친교가 시작된지 8주 이후에는 행동의 다양성이 둔화됨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은 우정이 진전된 관계에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해석이 가능하다.

사권지 3주부터 12주까지 4회에 걸쳐서 우정관계를 연구한 Hays(1985)는 밀접한 우정관계에서 3~6주 사이에서 행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남을 보고하였다. 또한 사권지 한달부터 7개월의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수행된

한덕웅(1985)의 연구에서 우정이 진전된 경우 전체행동수가 사권지 1개월 때 보다는 8개월경에 증가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정이 진전된 관계에서는 행동교류의 폭이 사권지 6~8주까지는 증가되고, 그 후에도 초기 3~6주 때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유의하지만 6~8주 때와 비교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행동교환의 단계에 접어든다고 볼 수 있다.

(2)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 : 우정관계가 진전된 사람들은 진전되지 못한 사람들보다 사권지 3주부터 긍정적 행동을 더 많이 교류했다. 또한 우정관계가 진전된 사람들은 친교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긍정적 행동의 교류가 더 많았는데, 이는 선행연구(한덕웅, 198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긍정적 행동은 보상기능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정관계의 진전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친교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부정적 행동이 증가된 현상은 우정이 진전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났다. 이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로서, 몇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사회침투이론에서는 보상에서 부담을 제외한 값의 크기에 의해 사회침투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우정이 진전된 관계에서는 진전되지 못한 관계에 비해서 친교시점의 경과에 따라서 긍정적 행동수와 부정적 행동수의 상대적 차이가 커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두 집단에서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의 상대적 차이를 각각 보면, 진전집단($d=12.45$)에서는 비진전집단($d=8.63$)보다 더 크다. 또한 진전집단에서는 이 차이값이 1시점부터 차례대로 11.90, 13.14, 12.28이며, 비진전 집단에서는 9.81, 8.50, 8.59로서, 매 친교시점별로 보더라도 진전집단에서는 비진전집단에 비해서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의 상대적 크기가 더 컸다. 따라서 진전집단에서의 부정적 행동의 증가는 긍정적 행동이 부정적 행동보다 크게 증가되는 상대적 증가에 의해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두 집단에서 질적으로 다른 부정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 해석은 행동별 발생백분율의 분석에 의해 뒷받침된다. 즉, 우정이 진전된 사람들에서 세 시점에 걸쳐서 발생백분율이 유의하게 증가된 부정적 행동들은 오해하다, 신경질부리다, 화내다, 싸우다, 다투다 등이었다. 반면에 진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는 세 시점에 따라서 도망가다, 질투하다, 미워하다, 싫어하다, 욕하다 등의 행동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즉, 비진전집단에서는 진전된 집단에 비해서 세 시점의 경과에 따라서 우정관계를 해치거나 와해시킬 수 있는 극히 부정적인 행동들이 유의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우정관계의 진전여부는 친구관계를 이루는 두 사람 사이에서 부정적 행동을 처리하거나 수용하는 방식과 관련될 수 있다(한덕웅, 1985). 즉, 우

정이 진전된 관계에서는 부정적 행동을 관계내에서 잘 수용하고 대처하는 반면, 진전되지 못한 관계에서는 부정적 행동에 잘 대처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부정적 행동이 우정관계의 지속을 저해할 수 있다. 우정관계의 진전여부에 따라서 부정적 행동에 대한 적응양식이 다른지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3) 행동차원별 분석 :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의 구조를 세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차원의 2개의 양극요인별로 행동변화를 살펴 보았다.

우정관계가 진전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결합행동이 더 많았고 세 시점의 경과에 따라서도 결합행동이 증가했는데, 이는 선행연구(한덕웅, 1986 a)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분리행동 역시 친교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증가했다. 그러나 선행연구(한덕웅, 1986 a)와는 달리 진전집단에서는 친교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분리행동이 유의하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두 집단에서 세 친교시점에 따른 결합행동과 분리행동의 상대적 차이를 보면, 진전집단에서는 세 친교시점의 경과에 따라서 비진전집단에 비해 결합행동이 분리행동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우정이 진전된 관계에서는 진전되지 못한 관계에 비해서 수용행동이 많았는데, 사권지 8주와 13주 사이에서 특히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전집단에서는 세 친교시점의 경과에 따라서 적대행동이 더 많아졌다. 이에 대해서는 수용행동과 적대행동의 상대적 차이로써 설명할 수 있다. 즉, 진전집단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적대행동이 증가했지만, 수용행동의 증가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했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우정이 진전된 관계에서는 시점의 경과에 따라서 손윗 아랫 행동과 손아랫 사람 행동이 각각 증가하였다. 그러나, 모든 시점에서나 진전집단은 물론 비진전 집단에서도 이 양극의 행동빈도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선행연구(한덕웅, 1986 a)의 결과와도 일치되는데, 우정관계가 비교적 대등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4) 행동별 발생백분율 : 50%이상의 발생을 보인 행동들을 보면, 우정이 진전된 관계에서는 진전되지 못한 관계보다 더 많아서 상대적으로 행동교류가 높았다.

우정이 진전된 관계에서는 세 친교시점의 결과에 따라서도 50%이상의 발생을 보인 행동들이 증가하였는데, 감사, 약속, 부탁 등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추가되었다. 선행연구(한덕웅, 1986 a)에서는 이 행동들의 일부는 친교가 시작된지 8개월 후에야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우정이 진전된 관계에서는 비교적 짧은 친교기간동안에 우정관계의 친밀성을 높이는 행동들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세 시점에 걸쳐서 행동발생율이 유의하게 증가된 행동들을 보면, 우정이 진전된 관계에서는 긍정적 행동

뿐만 아니라 부정적 행동도 증가했다. 반면에, 우정이 진전되지 못한 관계에서는 부정적 행동들이 많아진 반면 친밀한 우정관계의 촉진과 관련된 긍정적 행동들이 감소했다. 이 결과는 우정관계의 진전여부에 따른 행동적 특징을 나타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2) 자기노출의 변화 우정관계가 진전된 사람들은 진전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첫 조사시점인 3주경을 제외하고는, 더 다양한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친교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대화의 다양성이 증가했지만, 8주와 13주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상당한 수준으로 자기노출이 이루어진 후에는 언어적 교류의 폭이 둔화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친교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친밀한 내용의 대화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도 더 친밀한 화제의 대화가 이루어져서 언어적 교류가 깊은 수준에서 이루어져감을 알 수 있다. 또한, 친교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친밀도 수준이 다양한 화제의 대화를 교류하였으며, 친구와 대화한 화제의 바람직한 수준 역시 높아졌다. 한편, 진전집단에서는 세 친교시점의 경과에 따라서 대화내용의 다양성, 최고 자기노출 수준, 평균노출 수준 및 최고요망도 수준이 높아졌다. 진전집단에서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최고 자기노출 수준과 최고 요망도 수준의 증가는 선행연구들(한덕웅, 1985; Altman과 Taylor, 197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3) 매력의 변화 진전집단에서는 비진전집단에 비해서 상대를 더 매력적이라고 보았다. 비진전집단에서는 세 시점에 따라서 상대에 대한 매력이 감소했다. 비진전집단에서의 매력의 감소현상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발견된다. Hays(1985)는 친교 후 3주 간격으로 12주까지 4차례에 걸쳐 우정강도를 평정케 한 결과, 친밀한 관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우정강도가 시점에 걸쳐서 일관되게 감소함을 보고했다. Berg(1984)는 상대방과 앞으로 함께 생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6개월 전에 비해서 호감이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한편, 매력을 친밀도 수준에 따라서 네 수준으로 평정케 했을때, 가장 피상적인 수준에서의 매력 평정치는 가장 높고, 가장 친밀한 네번째 수준에서의 매력까지 점차로 득점이 낮았다. 또한 우정이 진전된 경우에는 피상적 친밀도 수준의 매력이 시간경과에 따라서 낮아지는 것과는 달리(14.19 → 13.47), 친밀한 수준의 매력 평정치는 낮아지지 않았다.(12.45 → 12.38). 또한 사권지 3주경에는 네 친밀도 수준별 측정치 사이에 차이가 현저했으나, 그후 10주가경

과된 13주에는 3주경에 비해서 그 차이가 현격하게 축소되는 평균으로의 회귀현상을 보였다. 이 결과들은 친구관계의 친밀도 수준별로 매력을 측정해야 한다는 한덕용(1978, 1985)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4) 관계지각의 변화 우정이 진전된 관계와는 달리 진전되지 못한 관계에서는 1시점에 비해서 2시점에서 과소불형평 지각이 더 컸다. 이는 불형평 지각이 우정관계의 비진전과 관련된 요인임을 시사해준다. 비록 이성관계를 다룬 연구들이기는 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도 형평요인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Walster, Walster 및 Traupman(1978)은 형평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불형평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관계지속을 더 자신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Sprecher- Fisher(1980, Berg와 McQuinn, 1986에서 재인용)는 이성관계의 불형평 수준이 4년 후의 관계종결과 관련됨을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관계형성 초기의 불형평은 관계의 비진전이거나 관계의 종결로 이끌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우정이 진전되지 못한 사람들은 진전된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방과의 장차의 관계를 더 비관적으로 보고, 더 불만족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덜 받으리라고 기대하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덜 줄 것으로 보았으며, 상대방의 성격을 자신의 이상적 친구상과 덜 유사하다고 지각했다. 이러한 경향들은 사귀지 13주에 이르러서 특히 더 두드러졌는데, 또한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우정이 진전되지 못한 사람들은 진전된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방이 자신을 덜 좋아한다고 지각했다.

또한 우정이 진전되지 못한 사람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점차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서 덜 만족했고, 상대방이 자신을 덜 좋아한다고 지각했고,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덜 받으리라고 기대했으며, 상대방의 성격을 자신의 이상적 친구상과 덜 유사하다고 지각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만족, 관계예견, 도움을 주고 받을 정도, 호감지각 및 성격유사성 지각등의 관계에 대한 평가와 예견이 우정관계의 진전여부를 구분지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임을 알았다.

5) 귀인 우정관계가 진전되거나 진전되지 않은 두 집단을 합쳐서 보면, 친하거나 친하지 않게 된 원인으로는 공통적으로 만나는 기회의 다소나 지내다보니 친하거나 친하지 않게 되었다는 상황적이고 우발적 원인을 들었다. 그러나 우정관계가 진전된 사람들은 우정지속의 원인을 자신보다는 상대방이나 두 사람 모두에게 공동귀인시키지만, 우정관계가 계속 지속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 때문이라고 귀인시키

는 경향이 있었다. 비록 우정관계에서의 귀인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본 연구결과는 Fletcher, Fincham, Cramer 및 Heron(1987)의 연구결과와 일관된다. 이들은 이성관계에서 행복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양자 상호작용으로 원인을 돌리는 대인귀인(interpersonal attribution)을 더 많이 사용하며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나 상대방의 내적 요인이나 관계밖의 요인들에 귀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Lloyd와 Cate(1985)의 연구에서도 행복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인귀인을 더 많이 사용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정관계의 진전여부에 따라서 귀인이 이루어지는 차원이 다를 수 있으며 귀인차원에서 내외귀인의 양분법이 적절치 않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시점간 및 시점내 중다예언 시점내 중다예언과 시점간 중다예언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결과를 요약할 수 있다.

1 시점에서 2시점을 중다예언할 때 유의한 예언요인들은 매력, 긍정행동, 최고노출 및 도움의도로서, 단편적 정보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거나 일차적 접촉에 토대를 두는 요인들이다. 특히 1시점의 매력은 2시점의 관계예견, 만족, 호감지각 및 도움기대를 유의하게 예언하는 요인이었다. 2시점에서 3시점을 중다예언할 때에는 이전 시점에서 유의했던 요인들뿐만 아니라 만족, 성격유사성, 도움기대, 형평 및 관계예견과 같이 상대방과의 깊은 교류를 토대로 경험하는 내용들이 주요 예언요인이었다. 특히 2시점의 만족은 3시점의 매력, 관계예견, 호감지각 및 도움기대를 유의하게 예언하였다. 이 결과는 친교시점에 따라서 우정관계 단면을 결정짓는 선행요인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대인행동이나 노출수준은 특정 시점에서나 시계열적으로도 우정관계의 다른 단면들의 선행요인으로만 작용하였다. 이는 매력이나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 또는 추론을 토대로 상대방에 대한 행동이나 노출수준이 결정되는 과정보다는 대인행동이나 자기노출 행동이 이 단면들의 추론과정에서 요구되는 단서들을 제공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 시점간 중다예언과 시점내에서의 중다예언분석 결과로부터 우정관계 단면들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알았고 인과성에 관한 추론 단서를 얻었다. 만족과 형평은 만족→형평→만족 순으로 인과적으로 관련되는 단면들이었다. 이는 관계에서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내용들이 형평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만족수준에 의해서 형평수준지각이 뒤따르게 되며, 그 후에는

이 형평지각이 만족수준의 예언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매력은 첫 조사시점내에서나 다음 시점에서의 만족수준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사권지 8주 후인 2시점에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경험하는 만족수준은 시점내에서나 다음 시점에서의 매력수준을 유의하게 예언하였다. 이는 만족수준이 깊은 교류수준의 매력측정과 관련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3시점에서 만족과 매력이 서로 관련되는 사실을 보더라도 그렇다.

매력과 도움기대는 세 시점내에서 각각 서로 관련되는 단면들이었다. 또한 1시점과 2시점의 매력은 각각 다음 시점에서의 도움기대 수준을 유의하게 예언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매력은 도움기대 수준을 추론하는 단서로 작용하거나 적어도 매력과 도움기대가 상호추론의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매력을 기대의 측면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Jones, Bell과 Aronson (1972)의 기대침해설이나 Tedeschi(1974; 이상욱, 1986)의 기대설과 관련지을 수 있는 지지증거이기도 한다.

네째, 세 시점내에서 매력을 준거로 할 때 14개 예언요인에 의하여 중다예언한 결과를 보면, 매력의 전체변량이 설명되는 크기는 세 시점에서 각각 62.8%, 74.5%, 73.6%로서 2, 3시점에 비해서 1시점에서는 10%이상이나 작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즉, 1시점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예언요인들 이외에 초기단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신체적 매력, 근접, 인구통계론적 변인들이 매력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리고 2, 3시점에서는 이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감소함으로써 14개 요인의 설명력이 1시점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커졌을 수 있다. 이 해석은 단계별 분석 결과로부터 시사받을 수 있다. 즉, 1시점에서는 대인행동과 기대가 유의한 예언요인이었고, 2시점에서는 노출과 관계만족이 중요한 예언요인으로 부상하였다. 한편 3시점에서는 관계예견이 새로운 예언요인으로 나타나서, 각 시점에서 매력을 예언하는 요인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가능성으로 남으며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윤 진(1984). 우정관계의 본질과 발달단계에 따른 변화. **사회심리화연구**, 제 2권 제 1호, 94-113.
- 이상욱(1986). 태도유사성과 기대확정에 따른 대인매력 효과.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덕웅(1986a). 우정관계의 진전에 따른 행동적 사건의 변화. **사회심리화연구**, 제 3권 제 1호, 33-72.

- 한덕웅(1986b). 대인매력, 사회심리학의 전개와 방향, 제 5회 한국심리학회 동계 연수회 자료집.
- 한덕웅(1985). 우정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종단적 연구. *사회심리학연구*, 제 2권 제 2호, 169-191.
- 한덕웅·신철균(1983). 대인관계의 성질과 성역할에 따른 행동의 차이. 성균관대학교, *학생지도연구*, 59-79.
- 한덕웅(1982). 대인관계의 행동적 구조 : 2인 관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논문집*, 제 32집, 143-180.
- 한덕웅(1980). 자기노출이 매력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논문집*, 제 30집, 109-137.
- 한덕웅(1978). 성격특성의 귀속체계와 대인관계가 매력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학위 청구논문.
- Altman, I.(1975). *The environment and social behavior: Privacy, personal space, territoriality, and crowding*. Monterey, Calif.: Brooks-Cole.
- Altman, I.(1974). The communication of interpersonal attitudes : An ecological approach. In T.L. Huston(Ed.), *Foundations of interpersonal attraction*. N.Y. : Academic Press.
- Altman, I., & Taylor, D.A.(1973). *Social penetration*. N.Y. : Holt, Rinehart, & Winston.
- Altman, I., Vinsel, A. M., & Brown, B.B.(1981). Dialectic conceptions in social psychology : An application to social penetration and privacy regulation. In L.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4. N.Y. : Academic Press.
- Berg, J.H., & McQuinn, R.D.(1986). Attraction and exchange in continuing and noncontinuing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5), 942-952.
- Berg, J.H.(1984). Development of friendship between roomm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2), 346-356.
- Berscheid, E., & Walster, E.H.(1978). *Interpersonal attraction*(2nd ed.). Reading, Mass. : Addison-Wesley Publ. Co.
- Braiker, H.B., & Kelley, H.H.(1979). Conflict in the development of close relationships. In R.L. Burgess & T.L. Huston(Eds.), *Social exchange in developing relationships*. N.Y. : Academic Press.
- Burgess, R.L. & Huston, T.L.(Eds.)(1979). *Social exchange in developing relationships*. N.Y. : Academic Press.

- Conover, W.J.(1971). *Practical nonparametric statistics*. New York : John Wiley & Sons.
- Cozby, P.C.(1973). Self-disclosure : A literatur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79(2), 73-91.
- Derlega, V. J.(Ed.)(1984). *Communication, intimacy, and close relationships*. N.Y. : Academic Press.
- Duck, S., & Gilmour, R.(Eds.). (1981). *Personal relationships. 1 : Studying personal relationships*. London : Academic Press.
- Duck, S., & Gilmour, R.(Eds.). (1981). *Personal relationships. 2 : Developing personal relationships*. London : Academic Press.
- Duck, S.(Ed.)(1977). *Theory and practice in interpersonal attraction*. London : Academic Press.
- Eidelson, R.J.(1980). Interpersonal satisfaction and level of involvement : A curvilinear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60-470.
- Fincham, F.D.(1985a). Attribution in close relationships. In J.H. Harvey & G. Weary(Eds.), *Contemporary attributio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 Academic press.
- Fincham, F.D.(1985b). Attribution process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 2. Responsibility for marital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183-190.
- Fincham, F.D., Beach, S.R.H., & Baucom, D.H.(1987). Attribution processes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 4. Self-partner attribution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739-748.
- Fincham, F.D. & O'Leary, K.D.(1983). Causal inferences for spouse behavior in maritally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 42-57.
- Fletcher, G.J.O., Fincham, F.D., Cramer, L., & Heron, N.(1987). The role of attributions in the development of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481-489.
- Hatfield, E., Utne, M.K., & Traupman, J.(1979). Equity theory and intimate relationships. In R.L. Burgess & T.L.Huston(Eds.), *Social exchange in developing relationships*. N.Y. : Academic Press.
- Hays, R.B.(1985). A longitudinal study of friendship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4), 909-924.

- Hays, R.B.(1984).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friendship.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5-98.
- Huesmann, L.R., & Levinger, G.(1976). Incremental exchange theory: A formal model for progression in dyadic social interaction.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9. N.Y. : Academic Press.
- Huston, T.L.(Ed.). (1974). *Foundations of interpersonal attraction*. N.Y. : Academic Press.
- Huston, T.L., & Levinger, G.(1978). Interpersonal attraction and relationship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29, 115-156.
- Huston, T.L. & Robins, E.(1982).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studying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4), 901-925.
- Jones, E.E., Bell, L., & Aronson, E.(1972). The reciprocation of attraction from similar and dissimilar others. In C.G.McClintock(Ed.),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N.Y. : Holt, Rinehart, and Winston.
- Jourard, S.M.(1971). *Self-disclosure : An experimental analysis of the transparent self*. N.Y. : Wiley-Interscience.
- Jourard, S.M.(1964). *The transparent self*. Princeton, N.J. : Van Nostrand.
- Kelley, H. H.(1979). *Personal relationships : Their structures and processes*.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
- Kelley, H.H., Bersheid, E., Christensen, A., Harvey, J.H., Huston, T.L., Levinger, G., McClintock, E., Peplau, G., & Peterson, D.R.(Eds.). (1983). *Close relationships*. N.Y. : Freeman & Co.
- Keppel, G.(1982). *Design and analysis*(2nd ed.). New Jersey : Prentice-Hall.
- La Gaipa, J.J.(1977). Testing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friendship. In S. Duck(Ed.), *Theory and practice in interpersonal attraction*. Academic Press.
- Levinger, G.(1983). Development and change. In H.H.Kelley, E. Berscheid, A. Christensen, J. Harvey, T.L. Huston, G. Levinger, E. McClintock, A. Peplau, & D. R. Peterson(Eds.), *Close relationships*. San Francisco : Freeman.
- Levinger, G.(1980). Toward the analysis of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510-544.
- Levinger, G.(1979). A social exchange view on the dissolution of pair relationships. In R.L. Burgess & T.L. Huston(Eds.), *Social exchange in*

- developing relationships*. N.Y. : Academic Press.
- Levinger, G.(1974) A three-level approach to attraction :Toward an understanding of pair relatedness. In T. L. Huston(Ed.) *Foundations of interpersonal attraction*. N.Y. : Academic Press.
- Levinger, G., & Raush, H.(Eds.). (1977). *Close relationships : Perspective on the meaning of intimacy*. Amherst, Mass.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Levinger, G., & Snoek, J.D.(1972). *Attraction in relationship : A new look at interpersonal attraction*. N.Y. : General Learning Press.
- Murstein, B.I.(Ed.)(1971). *Theories of attraction and love*. New York : Springer Publications.
- Newcomb, T.M.(1961). *The acquaintance process*.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 Regan, D.(1978). Attributional aspects of interpersonal attraction. In J.H. Harvey, Ickes, W., & Kidd, R.F.(Eds.), *New directions in attribution research*. Vol. 2. Lawrence Erlbaum Publishing.
- Regan, D., Straus, E., & Fazio, R.(1974). Liking and the attribution proces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 385-397.
- Riordan, C.A., Quigley-Fernandez, B., & Tedeschi, J.T.(1982). Some variables affecting changes in interpersonal attrac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 18, 358-374.
- Ross, M., & Fletcher, G.J.O.(1985). Attribution and social perception. In G. Lindzey & E. Aronson(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3rd ed.) New York : Random House.
- Rubin, Z.(1973). *Liking and Loving : An invitation to social psychology*.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Snyder, M., & Swan, W.B., Jr.(1978). Behavioral confirmation in social interaction :From social perception to social rea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4, 148-162.
- Taylor, D.A.(1968). Some aspects of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ocial penetration process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75, 79-90.
- Taylor, D.A., Altman, I., & Sorrentino, R.(1969). Interpersonal exchange as a function of rewards and costs and situational factors : Expectancy confirmation-disconfi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 324-339.
- Tedeschi, J.T.(1974). Attributions, liking, and power. In T.L. Huston(Ed.),

Foundations of interpersonal attraction. New York : Academic Press.

Thibaut, J.W. & Kelley, H.H.(1959).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Wiley :
New York.

Walster, E. Walster, G. W., & Traupman, J.(1978). Equity and premarital sex.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82-92.

ABSTRACT

A Multidimensional-Causal Approach to Friendship Development

Hahn, Duck-Woong & Lee, Sang-Woog

(Department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Sung Kyun Kwan University)

Based upon the framework of multidimensional-causal approach to relationship development(Hahn, 1985, 1986a), a longitudinal study wa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friendship formation and development. 47 junior college students who successfully continued to make a intimate friendship and 33 noncontinuing subjects completed the questionnaire at the 3, 8, and 13 weeks during the first term after admission to the junior college. Questionnaire consisted of interpersonal behaviors, self-disclosures, attraction to the partner, and evaluation or judgement of relationship.

On the whole, both the diversity of interpersonal behaviors and intimacy level of self-disclosure increased as the relationship progressed, but subjects who successfully continued to make a intimate friendship reported more behaviors, more self-disclosed, and were more attracted to the partner, compared with noncontinuing subjects. Equity about relationship, satisfaction, perceived liking, and expectation of being helped decreased for the noncontinuing subjects, but remained relatively unchanged in the continuing subjects. It was also found that while attraction to the partner was good predictor of the other aspects of friendship relationship in the earlier friendship development phase, satisfaction, expectation of being helped, and future anticipation with the relationship were more important predictors in the later phase. In addition, continuing subjects tended to make P×O interpersonal attribution and partner attribution for relationship maintenance, but for the noncontinuing subjects self-attributions were dominant as causes of relationship break-up. These results suggests that internal-external partition of attribution may be inappropriate for the intimate relationships.